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 11월

[www.airforce.mil.kr](http://www.airforce.mil.kr)



11

2006.  
Vol.341

# 공군 핵심가치

 **도 전**, 우리의 **정신**이다  
(Challenge, Our Spirit)

 **헌 신**, 우리의 **마음**이다  
(Commitment, Our mind)

 **전문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Professionalism, Our pride)

 **팀워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Teamwork, Our Strength)



# 공군

November 2006 No.341



국민 여러분을 위한 공군의  
마술. 하늘에는 '블랙아글스',  
땅에는 '공군 군악대'.  
표지디자인 | 홍위진 이영원

발행일자/2006년 11월 1일(통권 제341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대위 김민정, 중위(진) 손제연  
도안/대위(진) 최세진, 중위(진) 이영원  
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2** 공군혁신  
공군 핵심가치 선포의 의의<sup>\*\*\*</sup>
- 4** 특별기고  
야간 비행 때 NVG 쓰지 말라고요?
- 6** 공군탐방  
'51년 대구의 작은 막사, 軍民 화합의 전당으로 거듭나다  
군악축제의 모든 것 - 원주따뚝
- 11** To the Space  
공군의 원천기술, 우주인 배출사업 통해 보여준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될 뻔했던 공군인들의 유쾌한 뒷담화<sup>~!</sup>
- 16** I Love Airforce  
창공에서 이루어진 꿈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사랑
- 20** 여기는 다이만  
다이만의 삶을 푸르게... 양파를 키우는 남자들
- 22** AF Focus  
웹진 '방포사랑방'과 함께 한 20개월
- 25** Zoom In  
생도들만의 명예와 자부심, 사관생도 퍼레이드
- 26** 참모총장 스케치
- 28** 공군은 지금
- 32** 우리의 항공기  
우리 항공기의 미래, 한국형 전투기<sup>KF-X</sup>
- 34** 동아리 열전  
제8전투비행단 국공동아리 '웅비정'
- 36**誇가 있는 풍경  
뒷모습
- 37** 우표로 보는 전쟁사  
영국을 향한 독일의 끝없는 아욕
- 40** 생각하는 그림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 사나이
- 42** 이미지의 Hollywood English  
상반된 단어들의 말 맛
- 44** 마음으로 읽는 글  
눈물을 기억하라
- 46** 건강 365  
환절기 복병 알레르기성 비염
- 48** 심포 하나, 休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영국 관찰기 - 上 -
- 52** 제대군인 길라잡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면 사회가 보인다
- 54** 우리들의 이야기  
'06년 미 방공부대 견학을 마치고  
거침없는 신세대 병사들과의 만남  
나의 정든 애마를 떠나보내며
- 60** 책마울  
권현숙 作 「루마니아의 연인」
- 61** 기상전망대  
첫눈이 오는 11월에
- 62** 독자의 소리
- 65** 독자퀴즈



## 공군 핵심가치 선포의 의의<sup>意義</sup>

올해로 창군 57주년을 맞이한 공군은 지난 10월 9일 공군 조직원들의 행동원칙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핵심가치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공군은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이라는 공군비전을 선정하고 공군의 사명을 재정립했다. 이에 이어 역사 속에 면면히 살아 숨쉬던 공군의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 핵심가치! 왜 중요한가?

영속하는 기업엔 '핵심가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가치관과 판단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정보화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가치는 조직 성공의 DNA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가치는 우리 공군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 공군의 의지와 구성원들의 공통된 뜻을 모아

## 공군 핵심가치 :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 ○ 핵심가치 선포의 의의<sup>意義</sup>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한 것으로, 공군인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는 물론, 변화와 혁신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군인의 의지이다.

### ○ 핵심가치의 정의<sup>定義</sup>

- 도 전 : Challenge, Our Spirit(도전, 우리의 정신이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 헌 신 : Commitment, Our Mind(헌신,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조국과 공군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세
- 전문성 : Professionalism, Our Pride(전문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맡겨진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풍부한 지식·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 팀워크 : Teamwork, Our Strength(팀워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하는 자세



만든,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으면서 배를 지탱해 주는 닻Anchor과도 같으며, 집을 지탱해주는 주춧돌과도 같다. 따라서 핵심가치는 '공군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하는 윤리적인 원칙 또는 공통가치와 행동판단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핵심가치 선포」에 따른 우리의 의무

10월 9일, 공군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자존심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우리 공군의 역사와 미래가 반영된 4가지 핵심가치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창군역사 이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정립하고 함께 공유하며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모인 핵심가치 선포식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렇기에 핵심가치 선포식은 최고지휘관의 혁신을 향한 결심과

그 추진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적극 수용하고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추진위원회는 물론 33인의 혁신 Warrior들은 솔선수범하여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그 가치가 다시 우리 조직과 개인에게 유익하게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는 예하 부대에 전파하여 교육과 제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핵심가치 제도화되고 행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하다'고 했다. 공군혁신의 성공도 핵심가치의 내재화도 모두 혁신의 성공을 향한 계획의 실행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군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로 연결되는 공군 비전체계의 새로운 정립을 계기로 '선진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정성과 열정을 모아 힘차게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하여 공군의 핵심가치가 공군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강한 공군, 매력 있는 공군'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10월 9일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관련 발표가 우리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에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킨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동요하기보다는 더욱더 의연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치밀함을 보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공군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북핵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쟁역지 능력을 보유한 항공우주군 육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야간 비행 때 NVG 쓰지 말라고요?

“NVG(Night Vision Goggles, 야간투시경)가 그렇게 위험하다며? 너 비행할 때는 그거 쓰지 마라”

최근 한 친구와 통화하다 듣게 된 충고 아닌 충고(?) 다. 얼마 전 한 방송사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전투기 사고의 원인이 마치 NVG 때문이라든가 한 양 보도한 것을 보고 공군조종사로 있는 내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사진'이라는 문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의 혼을 빼앗는 요물'이란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첨단장비가 '사람 잡는 요물'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에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 NVG, 야간비행의 필수 장비

NVG는 야간에 자연광원을 이용하여 사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로,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미량의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 영상으로 변환시켜 준다. 1960년대 말부터 개발되어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정용 캠코더에도 활용될 만큼 보편화되었다.

NVG는 현대 항공전력이 무차별적인 파괴에서 최단 시간내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대전에서 이러한 작전을 24시간 수행하여 최단시간내 공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방국의 전투조종사들이 야간비행시 항시 사용하는 필수 장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NVG는 야간비행 중 어떻게 사용되는가? 제일 큰 이점은, 조종사가 야간에도 주간과 같이 항공기 자세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가상지평선을 확인할 수 있어 시계비행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인지(Spatial Orientation)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비행 중 비행착각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주간과 유사한 전투기 동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NVG를 착용한 조종사는 야시능력을 갖춘 수리부엉이가 깜깜한 밤에 손쉽게 사냥감을 잡듯이 적기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 위협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전시 생존성이 증대된다. NVG를 착용하면 적기의 외부등을 약 80km 거리에서부터 식별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 적기가 쏘는 공대공 미사일이나 기관포의 궤적을 발사 순간부터 볼 수 있어 보다 빨리, 그리고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로 임무시 은밀성이 보장된다. 전투기는 야간 침투 중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모든 항공기 외부등을 끄기 때문에 육안으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NVG 운영시 'NVG 임무용으로 개량된 외부 Beacon Light'를 활용하여 적은 아군기를 볼 수 없지만 아군기 간에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도 육안으로 항법경로와 표적지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한 항법을 가능하게 하고,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비정밀 무장투하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폭격 후 목표물의 피해 정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



물론 NVG에도 제한점은 있다. 40°로 제한된 시야 각이 가장 큰 제한점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NVG의 효용성이 퇴색될 수는 없다. 야간에 차량 전조등이 비춰주는 각도도 주간에 비해 상당히 좁지만 이 전조등 덕분에 야간 운전이 가능하다. NVG가 지닌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은 조종사들이 NVG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초보일 때는 그렇게도 부담스럽던 야간 운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별 제약을 느끼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오히려 낮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기 때문에 더 안전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공군도 야간 임무시에는 훨씬 더 강화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한다.

조종사들의 입장에서 야간 임무시 NVG를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NVG를 운용하지 않으면 우리 공군의 야간 전투수행 능력은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관제사들의 지시와 레이더에 의존해 임무에 투입되어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돌아오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지난해부터 NVG에 대해 건설적이지 못한 논란이 많았다. NVG를 폄하하는 보도들은 대개 NVG가 야간에 사용하는 장비라는 점을 간과하고 주간 환경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NVG를 직접 운용하는 공군의 전문가들을 제쳐둔 채, 아무래도 덜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외부의 취재원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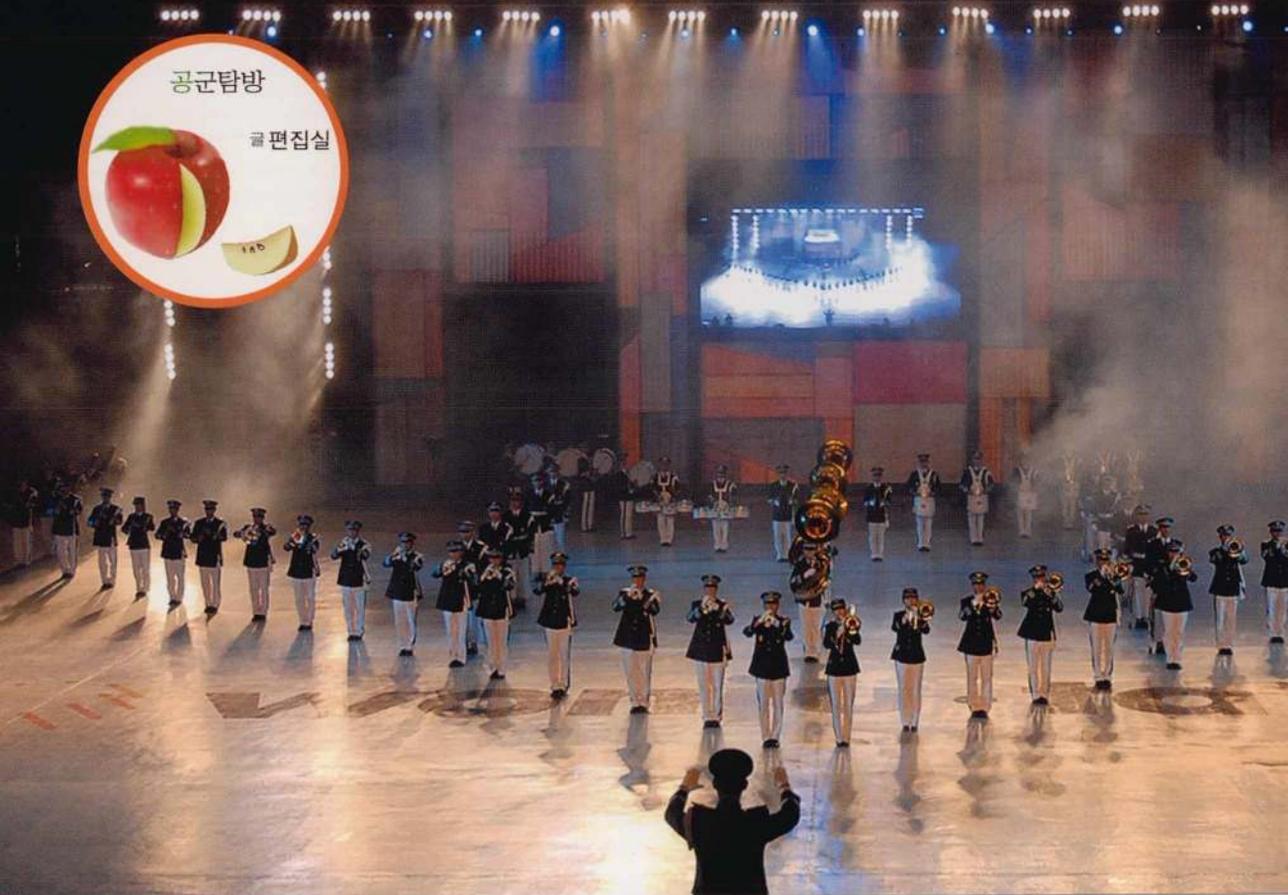
예를 들면, NVG는 외부 밝기 변화의 영향 없이 시현되는 영상의 밝기가 항상 일정하도록 전자회로에 의해 조절되는데도 불구하고 15년 전 사용하던 구형 NVG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모쪼록, 필자의 친구를 포함해 NVG를 요물로 보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이제는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사진모델 : 제19전투비행단 대위 박희철  
 사진촬영 : 제19전투비행단 중사 김기호

공군탐방

편집실



## '51년 대구의 작은 막사,

**군생활의 경험은 “군악대 공연을 몇 번 들었느냐”에 좌우된다**

필자가 <공군 군악대>의 공연을 처음 접한 것은 작년 군입대 당시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의 입대장병 환영 행사장이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입대시각을 몇 분 앞두고 부모님, 여자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던 그 곳에, 공군교육사령부 군악대의 <공군가>가 울려 퍼졌다. 평소 좋아하시던 익숙한 멜로디를 들은 어머니는 “나도 공군 가족이 되는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첫 번째 <공군 군악대>의 공연은 나보다도 어머니가 공군 가족이 됨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두 번째 공연은 행군이 끝나고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이는 내가 군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축하메시지였다. 이들 앞을 지나칠 때 나는 지쳐있던 어깨를 바로세웠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전투구보를 마치는 길목이었고, 네 번째는 임관하던 날이었다. 각각이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지만, 내가 공군과 가까워지는 순간을 함께 했다.

소위 ‘군대짬밥’을 몇 그릇 먹었느냐가 군생활의 경험을 좌우한다지만,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건 바로 “군악대 공연을 몇 번 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인지 행군이 늦어져서, 일정상 마지막 전투구보를 경



‘악기는 내가 지킨다.’ 고가의 장비를 항상 대동하는 군악대에 악기 직감병은 필수다.



55년 전 피난시절 대구의 한 막사에 <공군 군악대>를 창설했을 때만 해도 군악 전용 공연장이 생기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까? 군악대가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군과 국민의 교감을 증진시키는 군의 전령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06년 10월, 세계군악축제인 원주따뚜의 전용 공연장에서 <공군 군악대>는 피난지의 작은 막사를 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서 있었다.

마칭 밴드에서 마술까지 :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모든 것

## 軍民 화합의 전당으로 거듭나다

힘하지 못해 그들을 위해 올려퍼지는 군악대의 공연을 두 번이나 놓쳤다는 내 다음기수 후배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 강한 공군의 이미지

기원전 그리스 군대가 싸움터에서 돌격할 때 군인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강렬한 음악을 연주한 것이 군악의 기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취주악의 형태를 띤 군악대의 편성은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의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육·해군 군악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방부 및 해병대 군악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군 군악대>는 전란의 와중인 1951년 10월 17일, 피난지인 대구 기지의 작은 막사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52년 3·1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한 공군인을 육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 공군의 기상을 나타내는데 있어 하늘에 <블랙이글스>가 있다면 땅에는 <공군 군악대>가 있는 것이다.

### 트로트에서 마술까지 :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황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인들을 위해 글린데본 오페라단의 행정관이던 루돌프 빙Rudolf Bing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세계최고의 군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국의 에딘버러 군악축제(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Edinburgh Military Tattoo), 이 축제는 시민들에게 평화를 알리고 새로운 활기를 북돋워주는 한모금의 정화수와도 같은 의미가 되었다. 군악축제가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음악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쉽게 생각하듯 전시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자극적인 북소리만이 군악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세계군악축제 원주따뚜를 보면서 느낀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군악은 더 이상 한정된 장르에 연연하고 있지 않았다.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에서 협연했다는 <뉴질랜드 하이랜더 댄서팀>의 곡선미를 살린 춤도 그러하고, <미8군 군악대>의 강렬한 퍼포먼스도 단조롭기 쉬운 무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다양한 거리공연과 비정규무대에서 벌어지는 특별 공연들도 내가 생각하던 군악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특히 <공군 군악대>가 멈추지 않고 앞장서 장르의 한계를 파괴해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과의 교감을 통해 공군이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군 군악대>는 마칭밴드뿐만 아니라 실내악, 국악공연, 중창단, 스윙밴드, 아카펠라, 심지어 트로트와 마술까지도 소화해낸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칭공연 역시 국내에서 공군이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공군 군악대>의 공연을 관람한 수많은 외국 군악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공군 군악대>의 다이내믹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연습한 겁니까?"

사실 소수의 인원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공



마술쇼를 선보이는 신중관 상병

을 살려 의무복무에 임하는 많은 병사들은 본래 전공한 악기, 분야만을 지속적으로 갖고 다듬으면서 제대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무대에서 국민들과 접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어깨에 든든하게 걸려있는 북과 나팔이 평화로운 시기에 힘차게 울려 퍼질 때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되고 든든하게 여기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더 많은 아줌마·아저씨들이 모여들어 구경할만한 공연을 준비해야만 사람들은 믿음직한 그들을 보고 공군을 믿고, 더욱 안심을 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한 가지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 성원과 격려 속에 피어나는 자부심

2006년 원주따뚜에서도 <공군 군악대>는 우리의 것을 알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관중들과 함께하는 연주에 중점

하늘로 우주로 뻗어가는 공군의 나라사랑을 연출하고 있는 <공군 군악대>



을 두었다. 특히 마칭작품에서 하늘사랑을 주제로 하늘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공군의 나라사랑을 연출하여 많은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이 국민과 공군인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에 비해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원주따뚜의 일환으로 열렸던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공연을 관심있게 지켜 본 청중들은 대부분 무슨 이유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원주의 장미공원에서 공군의 스윙밴드 공연을 지켜본 한 관객은, “공연이 참 좋은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공군 군악대〉가 2005년도에 수행한 행사의 숫자는 크고 작은 군내 행사 201회를 포함하여 한 해 총 263건. 이를 통해 전국 3만여 명의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런 엄청난 공연의 횟수에 비해 그들의 존재는 우리

에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외국 군악대의 경우 참모총장 직속 홍보대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사라면 으레 동원되어야 할 구색으로만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군 군악대〉도 공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공군 가족들의 성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공군사랑을 이끌어내는 군악대의 마술

항상 세련된 모습으로 마술을 보여주는 신중관 상병이 땀에 찌들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군악대 입구의 경계병 근무를 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나가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적이 침입했을 때, 마술로 적을 제압할 수 있을까? 적의 총을 순식간에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신 상병의 마술처럼 〈공군 군악대〉는 사랑의 마술로 국민의 마음을 흠뻑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조금은 지나치게 공군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잠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공군 군악대〉의 마술이 당신의 마음을 흠뻑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믿음직한 그들을 보고 공군을 믿는다. 공연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군악대원들



원주따뚜 연출감독 박건 예비역 소령(사후 81기)

### 군악축제의 모든 것-원주따뚜(wonju · tattoo)

군악을 알기 위해서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다. 세계의 대표적인 군악축제로 자리매김한 제4회 원주따뚜(wonju · tattoo, 대한민국 군악대들의 면모와 세계 군악대의 면모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축제로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원주일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년마다 열린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 화려한 축제의 중심에 공군 군악대 출신 예비역 소령(사후 81기) 박건 연출감독이 있었다. 그로부터 군악축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2008년 10월에 펼쳐질 5회 공연을 기대하기로 하자.



〈미8군 군악대〉의 익살스런 퍼포먼스



〈프랑스 외인부대 군악대〉의 공연

**Q. 세계적인 군악축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국의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캐나다의 '노바스 코시아 인터내셔널 타투', 그리고 한국의 '원주따뚜'가 있습니다.

**Q. 군악축제를 원주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원주가 오랜 역사 속에서 지리적으로 군사 요충지였으며 지금도 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군사도시'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최하던 해가 6·25전쟁 발발 50주년 되던 2000년도였습니다. 분단 '道'인 강원도의 군사도시에서 당시 16개 참전국이 총과 대포가 아니라 나팔과 북을 들고 평화를 연주하여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기획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따뚜'라는 단어의 의미는?**

'따뚜'는 본래 타투(tattoo)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타투(tattoo)라는 말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네덜란드 등 베네룩스 국가에서 선술집 주인들이 외치는 소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문 달을 시간이 되면 지방부대의 고적대가 시가를 행진하였는데 행진음악은 속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고적대의 음악이 울리면 술집주인은 'Doe den tap toe' 술병마개를 닫으세요!하고 외쳤고, 'tap toe'에서 유래한 'tattoo'는 군악대의 행진 의식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따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동요 어린음악대의 따따따 뚜뚜뚜와 같이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원주따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Q. '원주따뚜'의 참가국과 참가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먼저 국내의 군악대로는 화려하고도 정제된 음색과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국방부 군악대>, 세계에 국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과시하고 있는 <육군 군악대>, 새로운 음악시도와 뛰어난 연주기량을 자랑하는 <해군 군악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음악

회'로 호응을 얻고 있는 <공군 군악대>, 웅장한 선율로 전국 순회연주회를 통해 호평을 받고 있는 <해병대 군악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1야전군사령부 군악대> 등이 있습니다.

외국의 참가팀으로는 외인부대로 유명한 <프랑스 외인부대 군악대>, 유서깊은 역사적 전통·풍습과 함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몽골 육군 중앙 밴드>,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에서 영국여왕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뉴질랜드 하이랜더 댄서팀>, 클래식에서 재즈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영역의 레퍼토리로 세계인들과의 만남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군악대>, 전문음악가로 구성되어 엄격한 자격요건과 음악적 기량을 요구하는 <싱가포르 국방부 군악대>, 한국에 파병된 미8군의 음악적 지원을 위해 결성된 <미8군 군악대>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군악대>



역사적 전통과 풍습을 보여주는 <몽골 육군 중앙 밴드>

**Q. '원주따뚜'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2000년 '세계평화 팡파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2002년에 제2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부터는 '원주따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는 마칭전용공연장을 완공하여 보다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참가국가별로 1일 공연을 하던 기존의 '내셔널데이' 방식에서, 1회 관람으로 모든 국가의 마칭공연을 볼 수 있는 '통합형 공연' 방식으로 변경한 점도 올해 공연의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거리공연과 장미공원의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공군의 원천기술, 우주인 배출사업 통해 보여준다



최초의 국산 중등훈련기 KT-1



“이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쇼 아닌가요? 여차피 공군 조종사가 가게 될 게 뻔한데...”(ID 라이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누리꾼의 말대로 공군 조종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된다면 그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군 전체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언뜻 생각하기에 3차원 공간에서의 상황판단능력, 비상상황에서의 상황대처능력을 갖춘 전투기 조종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주인 선발 사업의 모집 요강을 보면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선발을 선뜻 확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우주인이라고 하면, 우주선을 자유자재로 모는 전투기 조종사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선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조종간을 잡을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착륙때 생기는 중력가속도를 견디고 비좁은 환경에서 버틸 수 있

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더욱이 이번에 선발될 우주인은 우주선을 직접 조종해야 하는 우주비행사가 아닌, 특별한 실험을 수행하게 될 과학자라는 점에서 공군 조종사의 선발을 더욱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이 우주인에 선발되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가.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이라는 공군 비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과 우주공간은 공군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며, 앞으로도 공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외쳐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투기 조종사가 우주인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우리 공군은 우주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공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4차에 걸친 우주인 선발 과정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이는 공군과 항우연이 지난 7월 19일 체결한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제3훈련비행단에서 우주적성검사 실시**

먼저, 지난 9월 29일부터 5일간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다. 이 검사를 통해 최종 245명의 합격자가 가려졌고, 이들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항공우주연 구원에서 펼쳐진 2차 전형 중 정신 심리검사와 심층체력평가를 받았다.

공군만이 가진 원천기술의 진면목은 10월 28일 경부터 11월 24일경까지 진행될 예정인 3차 전형에서 발휘된다. 2차 전형을 통과한 30명은 항의원에서 저압실 체험, 가속도 내성체험 등을 통해 우주적성검사를 받게 된다.

저압실 체험은 기압이 매우 낮은 고공에서의 신체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저압실에서 받는 훈련으로, 이때 산소마스크를 벗고 저산소증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가속도 내성체험은 전투기 기동 중이나 우주선 발사시 받게 되는 급격한 중력가속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보유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곤돌라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된다.

저압실 체험훈련과 가속도 내성체험훈련 모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항공우주의료원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투기 조종사를 지망하는 학생조종사들이 초등비행훈련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1월 말에서 12월 초경까지 실시되는 4차 전형에서는 최초의 국산 중등훈련기인 KT-1도 활약을 펼치게 된다. 3차 전형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주인 후보자가 제3훈련비행단에서 각각 1소터씩 KT-1에 탑승함으로써 또 다른 종류의 우주적성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군은 이번 우주인 배출 사업 과정에서 ‘공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전투기 조종사가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기소침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공군만이 가진 원천기술로 우리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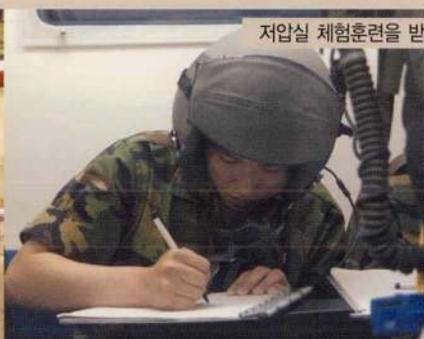
우주인 선발과정에서 펼쳐 보일 공군의 맹활약을 지켜보자. 동시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되기를 기대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



중력가속도 내성 체험을 위한 곤돌라



저압실 전경



저압실 체험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조종사들





##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될 뻔했던 공군인들의 유쾌한 뒷담화~!

10월 13일,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에 한발 짝 다가서게 된 24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3.5km를 20분 안에 주파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도 어려웠던 필기시험과 서류평가에 합격한데 이어, 지난 달 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실시된 기본신체검사까지 통과한 사람들이다.

총 3만 6,206명의 지원자 중 0.7%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상당 수준의 지성미를 갖춰야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이들 중 누군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될 터이고 더불어 전 국민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혹여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이 245명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상위 1%라는 자부심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그 0.7%만의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포부도 당당하게 3.5km를 단 20분 안에 주파하고, 그 어렵다는 필기시험도 가뿐히 통과했던...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아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던 255명의 사람들. 사실 신체적 조건이란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한 것이라,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 아닌가.

이 눈물겨운 숙명에 어쩔 수 없이 우주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두 명의 공군장병을 만나, 그들이 한 때 품어왔던, 아니 아직도 버릴 수 없는 우주에 대한 꿈

과 우주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어로 지구를 향해 메시지를 날려보고 싶었다”**

**- 로맨틱 파일럿 이재성 소령**

제11전투비행단 제151전투비행대대 4편대장으로 F-4D 전투기를 몰고 있는 이 소령은 어린 시절 읽었던 허버트 조지 웰즈의 「우주전쟁」이란 소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어릴 때 생각엔 20년쯤 후인 21세기에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건 문제도 아니고 우주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리라 상상했다는 이 소령.

우주공간에서 금단현상에 시달리게 될까봐 담배까지 끊었다는 이재성 소령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 상상력을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제가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모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봐도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파란 하늘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첫 기회가 와서 지원했던 건데..”

그는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일종의 국비장학생인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학위를 따기도 한 그는 우주인 선발 지원서를 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 오는 날을 빼고는 거의 매일 하루 4km씩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주선이 귀환할 때 바다에 빠질 수도 있던 말을 듣고 수영도 배웠다고.

“우주에 나가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ISS(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머물러야 할 텐데 거기는 당연히 실내 금연이겠죠? 임무수행을 하다가 금단현상이 생기면 곤란할까봐 담배도 끊어 버렸어요.”

KF-5 제공호, F-4 팬텀 등 11년간 여러 기종에 걸친 비행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배양해 온 3차원 공간상에서의 상황판단능력, 언제 도착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그리고 동료 항공기나 지상관계기구와의 의사소통 능력 등 우주인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분야의 연구 경험 또한 우주인이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던 터라 이 소령에게 이번 탈락은 남달리 아쉬운 것이었다.

“부모님은 1차 선발 결과도 안나왔는데 벌써 아들이 우주인 후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지 뭐예요. 집사람도 위험할까 봐 걱정은 좀 했지만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운동하러 가라, 공부하라며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부질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섭섭한 질문. 만약, 우주인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주에서 우리나라 말로 지구를 향해 메시지를 날려보고 싶었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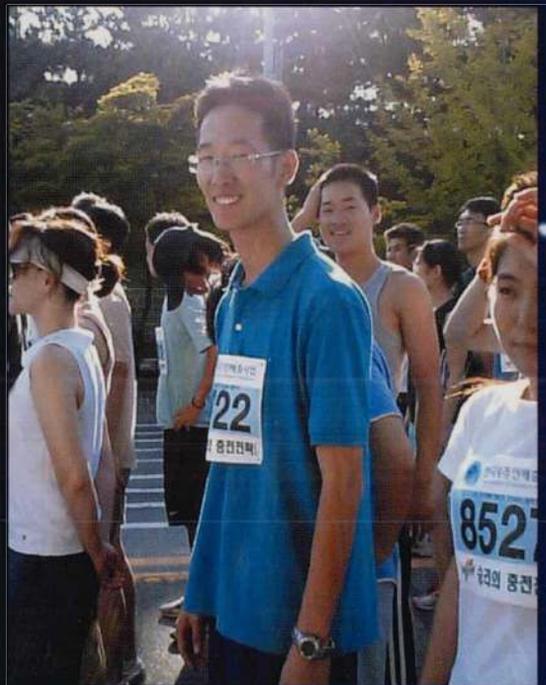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한국말이 뭘까 생각하며 달렸어요. 쉽사리 떠오르지 않더군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데,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해 보려고요. 언제 어떻게 다시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간비행에 나설 때마다 우주인에 도전했던 지금이 다시 생각날 거라는 이 소령. 언젠든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도 망설임 없이 지원할 거란다.

“단 하루도 별을 꿈꾸지 않은 밤이 없었다”

- 별은  가슴에... 오승혁 중위

오승혁 중위(사후 112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마다 ‘보름달’ 꿈을 꿴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



지난 9월 2일, 3.5km 달리기에서 앞서 각오를 다지고 있는 오승혁 중위

은 그 달이 평소보다 훨씬 큰 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우주인이 된 자신이 대기권 밖 우주선에서 달을 보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 두려 그 때마다 카메라를 찾았지만, 결국은 카메라를 찾지 못해 허둥대다 꿈에서 깨곤 했다.

**“우주인이 되었다면 딱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분신과도 같은 카메라죠. 고등학교 때도 천체망원경으로 달이나 토성 사진을 찍곤 했는데, 지구 밖 우주공간에서 찍는 달 사진은 확실히 다르겠죠?”**

군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에서 항공기엔진 관련 부품의 결합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오승혁 중위는 하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공군 현역)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하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다.

하늘에 대한 그의 꿈은 비록 막연하긴 했으나, 결코 허황된 것은 아니었다. 대구 영신 고등학교 재학시절 천체관측동아리인 '침성대'를 주도적으로 창설할 정도로 하늘과 우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보통 이상의 것이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위의 권유로 돈 안 되는 천문학을 포기하고 실용적인 학과를 선택해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에 입학했으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우주에 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단 하루도 별을 꿈꾸지 않은 밤이 없었어요. 대학 1학년 때는 매주말마다 매연으로 별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을 떠나 그 당시 부모님이 계셨던 충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 때 보았던 별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한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잠시 접어두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쳐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여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다. 비록 신체검사에서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3개월여의 시간 동안 우주인을 꿈꾸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자신이 매우 만족스럽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마다 별을 보며 달리고, 별을 꿈꾸며 시험공부하고, 갖 제한 연령을 넘긴 동생들로부터 아버지별도 넘는 어르신까지, 학생에서 대기업총수까지, 전 국민이 참가한 우주인 선발 축제와 함께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주인을 향한 도전은 여기서 멈춰 섰지만, 별을 향한 꿈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주를 향한 무한한 이들의 사랑과 열정이 함께 하는 한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비전도 별처럼 영원히 밝게 빛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주를 향한 우리들의 꿈은 계속된다. 우리가 최고~!



# 창공에서 이루어진 꿈

공군은 지난 9월 말 사회복지재단인 <Make A Wish> 한국지부의 요청으로 난치병 아동인 홍원기 군의 소원을 들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원기 군의 소원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가 보유하고 있는 HH-47 시누크 헬기를 타는 것.

「월간공군」에서는 <Make A Wish> 자원봉사자인 서범석 팀장과 홍원기 군 어머니의 글을 통해 원기 군의 가슴 벅찬 소원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따라가 보았다.

**꿈**이라는 것을 품고 있을 때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의 순결한 마음을 한순간 녹였던 일을 글로써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Make A Wish> 재단에 대하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여겨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Make A Wish>는 3세에서 18세까지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의 소원(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등)을 살아 있는 동안 가장 추억에 남도록 이벤트화하여 이루어주는 세계 최대의 소원성취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의 일들은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아이들이 삶의 희망을 발견하여 이를 '완치'라는 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3년이며, 현재 만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재단 한국지부입니다.

이제 홍원기 군의 이야기를 하죠. 원기는 9세된 남자 아이로 현재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이영양



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굳어지는 병으로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 병입니다.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상태라 많은 어린이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도가 심해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이 원기 군을 Wish-Kid(위시킴)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라 많은 만남 속에 진정 아이의 소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직감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기 군은 이런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재단에 신청한 내용은 “헬리콥터를 타고 싶어요”라는 짤막한 한마디였으니까요. 이제부터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원기의 소원이 변함없는지 꾸준히 관찰함과 동시에 어떻게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줄지와 어디에 협조를 구하고, 행사당일의 준비 스케줄과 준비물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접촉을 시도한 곳은 산림청과 방송국 등 헬리콥터를 보유한 곳 등이었지만, 원기가 타고 싶어하는 헬리콥터가 ‘시누크’라는 것을 확인한 후 공군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헬리콥터를 타고 원기 군의 꿈을 하늘에 뿌리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지상에서 그를 맞아 오늘이 다시 태어나는 생일과 같도록 많은 감동을 준비하였고, 모든 대대원들과 예정에 없던 전대장님의 위문 방문으로 가장 행복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천운’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후 우리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생명에 희망을 불어넣어 용기를 가지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질병과 사망에 앞서 아이

를 만나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촛불과도 같은 존재라며 항상 자신들을 추스르며 살고 있습니다. 생업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Wish를 진행하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라는 마음을 선물로 담아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이것을 받는 아이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작은 것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홍원기’라는 아이의 꿈이 창공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민국 공군 모든 분들과, 특히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5비행 대대장님 이하 대대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서범석 씨는 공군 병 제477기로 제대한 공군 가족으로, 오산지에서 관제특기로 30개월을 복무했다.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Make A Wish〉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원기 군이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 건강상태임을 세브란스 병원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통해 모두 확인하고 이제 대망의 9월 29일, Wish-Day 위시데이가 밝았습니다. 서로 다른 차량으로 다른 시간에 출발해서 원기 군이 모르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밀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대장님께 감사했던 것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대대에 1대뿐인, 마스크트와도 다른 없는 시누크 모형을 원기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원기 군의 소원이었던 시누크를 타고 서해를 보았을 때의 가슴 벅찬 그 여운을 항상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사랑

어릴적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얌전했고 힘이  
 지 않았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모든 발달  
 이 늦어도 난 그저 조금 늦은 아이러니 했을 뿐이다.

유치원에 다닐 무렵,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연락이 왔다. 원기가 머리가 찢어져서 병원에 껴매려  
 왔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나가다가 원기를 밀지도 않  
 았는데 그냥 넘어졌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이 우리 아들의 '인생의 신호'였다.

그 후 여전히 부실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희귀병'이라고 했다. 그 다음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어느 산 중턱으로 올  
 라가 어느 산소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원기  
 아빠와 헤어진 문제부터 아들을 낳고 두 달만에 부은  
 몸으로 식당에 나갔던 일, 그때 엄마에게 젖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던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내 자신이 미워서 그 자리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싶  
 었던 그날, 믿기지 않는 일을 두고 얼마나 많은 눈물  
 을 흐렸는지 모른다.

이 엄청난 사실을 두고도 난 1년 넘게 일을 다녀야  
 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갈등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나와 아들을 지키는 것은 몇 푼의 돈  
 이 아니라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공부  
 를 시키는 것이었다. 아들의 의식이 아파서 점점 쇠약  
 해지는 자신의 몸만 바라보며 한탄에 빠져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난 일주일 내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  
 려와서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나는 물론 아이까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학교에 보냈다. 학교의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아들의 병을 설명하고, 선생  
 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학교생활에서 모자란 부분은  
 집에서 채워 나갔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들어섰다. 담임선생  
 님을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은 얼마나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고 잘해보겠노라며 안심시켜주셨다. 그  
 날 난 내 어깨에 있는 짐 하나를 덜어  
 주신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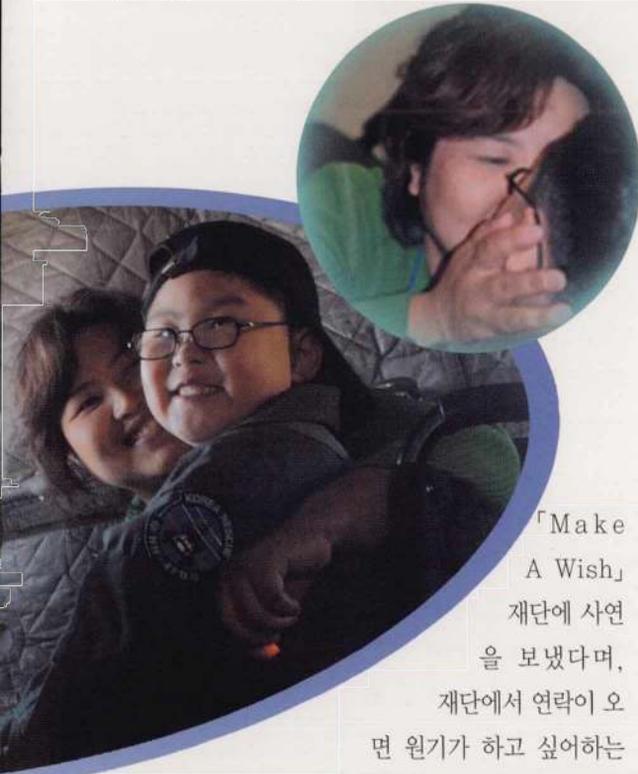
아들은 2학년이  
 되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아  
 들은 몸은 장애  
 가 있어 남들처  
 럼 자유롭지 못  
 했지만 이해력  
 은 뛰어났던  
 것이다. 아들  
 의 IQ가 평  
 균치를 겨우  
 넘었는데도 말  
 이다.

아들의 병인 근이영  
 양증은 근육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주이지만 뇌, 눈, 심  
 장, 폐, 기타 기능 등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친다. 난 아  
 들을 그냥 아픈 아이로만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게 치료를 마치고 와서도 집에서 아들을 앉혀놓고



기초를 가르친다. 공부 끝나면 아들은 제일 좋아하는 헬기를 그리기 시작한다. 공부할 때는 2시간도 힘들어서 나랑 싸워가며 하는 것에 비해 두세 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처음 들어보는 헬기를 종류부터 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나에게 열변을 토한다. 그럴 때 아들의 모습은 여느 아이와 다름없다. 아니 여느 아이들보다 더 큰 희망과 꿈이 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Make A Wish」 재단에 사연을 보냈으며, 재단에서 연락이 오면 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 아들은 단번에 소원을 말했다. “시누크 헬기를 타고 싶다”고…

재단에서는 도우미를 보내겠다고, 아들이 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있어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는데, 원기를 만나고 원기의 소원을 물어보면 열 번 물어봐도 원기는 열 번 다 헬기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시누크 헬기를 타고 싶다고 시종일관 말했다.

재단 측은 원기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그러면 그걸로 해보자고 했고, 그 다음주에 처음으로 공군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 헬기를 진짜 탈 수 있느냐며 매일매일 귀찮을 만치 물어봤다.

드디어 9월 29일, 우린 청주로 향했다. 아들은 새벽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일어나 설레서 잠이 안 온다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다.

드디어 부대 입구. ‘원기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쩡해서 탄성은 질렸지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차로 도착하자 원기가 그리던 공군 아저씨들이 한 줄로 맞아 주셨다. 대대장님은 원기를 데리고 들어가 조종복을 입히고, 모자까지 아들의 이름 석자 ‘홍원기’를 적어서 씌워주셨다. 그리고 헬기 주기장으로 손수 데리고 가서는 까모프 헬기와 블랙호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다. 아들은 어안이 병병해 했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아들의 소원이던 시누크 헬기를 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순간의 감정을 어찌 다 표현할까.

어린 아이 하나의 소원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신 공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꿈에도 아들이 타볼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그리던 시누크를 타고,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서해를 봤다. 백령도와 함께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아들은 살아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이 순간들을 떠올리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들을 마련했었다는, 그 사랑으로 역경을 잘 이겨낼 것이다.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자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하단 말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말뿐이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짐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이 감사함을 되새기며 이겨내리라… 이날 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Make A Wish」 재단과 공군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다이만의 삶을 푸르게...

## 양파를 키우는 남자들

**3일간의** 부대적응 교육을 마치고 알리 알 샨람 기지 투어를 하던 날, 황량하  
기만 한 사막 환경을 실제로 체험했다. 지난 6월, 다이만  
4진으로 파병되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막은 실체가 없  
는 막연한 곳이었다. 제법 더울 것이라는 생각과 두건을  
두른 대장(隊長)이 낙타와 함께 모랫바람 속을 걸어간다는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다. 사막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만  
들어주는 식물인 야자수의 여유로움도 생각 속에 있던  
풍경 중 하나였을 뿐이다.

사막에는 푸른색을 띤 살아있는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래  
땅이 대부분이었지만, 외곽도로 옆으로 간간이 보이는  
풀은 모두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다. 고국의 6월처럼 생  
기 넘치는 녹음이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미군 LSA(Life Support Area) 지역으로 가는 길 옆에 늪지대  
와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만 유일하게 갈대와 비슷  
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  
르면 그곳은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자양분이 되어 사막에 푸른 식  
물을 자라게 하는가'라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차를 타

고 지나는 짧은 순  
간이나마 푸른 갈  
대를 보며 고국의  
6월 신록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다.



### 열악한 기상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중에 재파병되어 온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4진으로 이곳에 파병되어 온 동료들 대  
부분은 중동의 사막기후를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  
이었다. '이렇게나 더울 줄 정말 몰랐다'고 하는 사람  
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6월에서 8월까지의 건기 동  
안 아침 최저기온은 약 35도, 낮 최고기온은 50도 이상  
을 기록하고, 9월에도 평균 최고기온 42도에 달한다.  
비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 구경하기 힘들다. 안면 보호  
두건을 썼는데도 아프게 느껴지고, 얼굴에 모래를 뿌려  
대는 것 같은 강풍에 동반된 모래바람은 평생 체험하기  
힘든 기후이다.

지난 여름,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시청하고 있는  
YTN과 KBS World 뉴스에서는 연일 고국의 장마 소  
식을 전해왔다. 중부지방에서는 수재민이 발생할 정도

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다. TV를 시청하던 동료들은 고국의 호우 소식에 내심 걱정을 하면서도, 그 비 중 100분의 1이라도 이곳에 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려는지 하늘에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9월 중순, 우리가 사막 무더위에 그나마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습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최고 기온이 나타날 때의 한낮 습도는 약 5% 내외로, 건식 사우나와 비슷하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몸에서 흘러나온 땀은 즉시 증발해 버린다. 고국의 다습한 여름처럼 끈적 끈적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습도가 낮아 불쾌지수 또한

낮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불별더위에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낙천적으로 살



아가는 모양이다.

이곳의 기후에 적응하면서 동료들의 마음도 처음보다 많이 여유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국에서의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에 비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생의 한 부분, 무엇인가에 자신을 맞추고 견디며 살아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으리라.

동료들이 흔히 '뜨거운 샤워'라고 부르는 이곳에서의 샤워는 그야말로 뜨거운 물 샤워라고 할 수 있다. 고국에서 한여름에 땀 흘리고 나서 찬물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했던가. 하지만 이곳에서는 샤워기를 틀면 섭씨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꺼지지 않는 사막의 태양 발전기가 급수탑에서 샤워기로 공급되는 배관을 뜨겁게 달구기 때문이다.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온수 샤워'라며 투덜대던 동료들도 지금은 '온욕(溫浴)이 몸에 좋다'며 너스레를 떨 정도로 여유를 부리고 있다.

## 고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이곳에서 동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부와 그리움이다. 가족들과 나누는 '별 일 없느냐', '별 일 없다'는 말 한 마디가 서로의 하루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준다. 6시간의 시차(時差)를 극복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게 한다.

10일에 한 번씩 고국으로 보낼 수 있는 우편물(편지와 소포 등)을 준비하는 동료들의 얼굴은 참으로 넉넉하고 보기에 좋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를 떠올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동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늘 길을 돌고 돌아 10여 일 후에 우편물을 받아 볼 가족을 매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파병생활은 보람되고 즐겁게 하루하루가 잘 간다. 일생에 한번 이렇게나 절실하고 튼튼한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척이나 행복한, 선택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 양파를 키우며

얼마 전부터 사무실과 숙소에서 양파를 키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산지(山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연한 보라색의 식용 양파이다. 빈 플라스틱 물통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 물을 담아 양파를 올려놓으면 며칠이 지나 하얀 실뿌리를 내리고 파란 싹을 틱워 올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건조하고 삭막한 사막색갈뿐인지라 사람들은 생명의 푸르름을 동경하는 것 같다. 양파가 내린 뿌리와 틱워 올린 싹의 개수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동료들도 있다. 양파 키우기는 자꾸만 메말라가는 사막의 건조한 정서를 푸른 생명력으로 보충하기에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다.

'양파를 키우는 남자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양파의 가녀린 뿌리와 푸른 싹 하나에서도 강인하고 푸른 삶의 의지를 확인한다. 푸른 자유와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푸르게 싹 틱워 가는 꿈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곳 다이만에 있다. (L)



AF FOCUS

글 장동하  
중위/방공포병사령부

## 방공포병의 끈끈한 연결고리,

# 웹진 '방포사랑방' 과 함께 한 20개월

작년 5월, '방포사랑방' 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 녀석과 함께 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당시 내가 다들 좋아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고작이었으니 나에게 있어 웹진 제작은 한 마디로 글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읽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로그랩까지 익히느라 고생했을 당시의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웹진 방포사랑방은 아마도 부대 소식지의 변화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 이후 지금은 공감空感으로 유명한 공군 뉴스레터

### 공군 웹진의 아버지, 방포사랑방

방포사랑방은 방공포병의 소식지로 출발했다. 당연히 그 시작은 인쇄물 형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있는 방공포병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방포사랑방이 2001년 2월부터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형식을 바꾸어 인터넷 웹진 형식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것. 지금이야 1인 1홈페이지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렇게 된 것도 불과 2, 3년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웹진의 형식을 빌린, 그것도 군대에서 만들어진 웹진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일반 사무실 PC를 서버로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웹진을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웹진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인데 서버 프



▲ 2005년 8월호 main



▲ 2006년 2월호 main

가 2003년 6월 5일 제1호를 발간했고, 한 부대의 웹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제30방공관제단의 천리안이 2003년 8월 3일 창간호를 내었다. 그밖에도 지금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남부전투사령부 등 여러 부대에서 웹진을 통하여 부대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

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은 장병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초인 방포사랑방을 감히 웹진의 아버지(?) 라고 불려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나간 시간의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문서를 통하여 당시 방포 사랑방 제작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있다. 가령 서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받고, 방포사랑방 제작을 위한 각종 원고들을 모집한 기록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그렇게 만들어진 방포사랑방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문제는 서버였다. 사무실 PC를 서버로 사용하다보니 PC에 이상이 생기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안관계상 CD Writer 기기나 USB 저장 장치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어려

## 방포사랑방을 처음 만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굳건히 지켜오던 방포 사랑방을 내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작년 5월이다. 돌이켜보니 방포사랑방과 함께 한 시간도 벌써 20여 개월이 다 되어간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덕분에 나는 전혀 다룰 줄 몰랐던 나모 웹에디터,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들을 수준급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방포사랑방 제작 임무를 맡았을 때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새로운 기술과 프로그램들을 익힌다는 것이 방포사랑방을 제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웠고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방공포병 장병들에게 있어 방포사랑방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들이라도 배울 수밖에 없었다. 아니 배워야만 했다. 방공포병 장병들에게 있어 방포사랑방은 단순한 웹진이 아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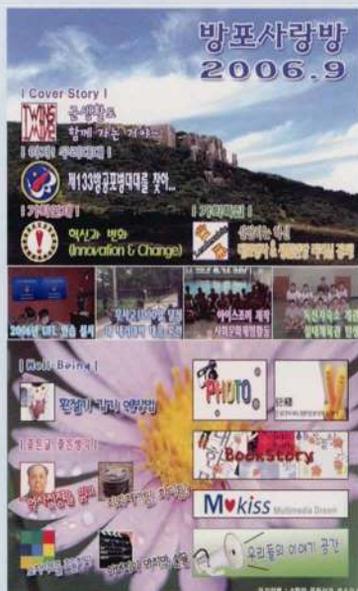
비록 그 모양은 투박하고 불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방포사랑방은 최고의 정보통이며, 최고의 소식지였다. 전국 산간 오지에 서로 떨어져 어렵게 군 생활을 하면서도 방포사랑방을 통하여 동기들의 소식도 접할 수 있고,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후배들에 대한 칭찬도 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맘껏 뽐낼 수도 있고, 좋은 책, 건강 상식, 좋은 글 등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볼거리에었던 것이다.

결국 그러한 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들은 알아야만 했고, 나는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

했다. 물론 웹진이란 것이 꼭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술 등 현란한 그래픽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방공포병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에 지금은 열심히 플래시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 2006년 5월호 main



▲ 2006년 9월호 main

웠다. 지금처럼 CD Writer 기기나 각종 저장 장치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서버 PC의 이상으로 눈물을 머금고 모든 자료들을 포맷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은 최근 1, 2년 사이의 것들 뿐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 너도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포사랑방에 최근 경사가 생겼다. 지난 9월부터 서버를 옮긴 것이다. 5년 동안 등지를 틀었던 사무실 PC를 떠나 보다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쪽으로 서버를 옮기게 되었다. 사실 사무실 PC를 서버로 쓰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PC의 이상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야간에는 PC 전원을 꺼야 하기에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방화벽으로 막혀있는 점 등 한동안 방포사랑방을 예하부대에서 마음 편히 보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었다.

뒤늦게 그런 사정을 알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지난 9월 서버를 옮기게 되었고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예전처럼 열심히 쌓아놓고 보관하던 자료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일도 없고, 예하부대에서도 1년 365일 시간에 관계없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세상은 너무도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는 많

은 신세대 장병들이 있다. 방공포병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에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웹진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방포사랑방도 웹진의 아버지라는 칭호에 걸맞게 방공포병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방포사랑방 자체가 방공포병 장병들 모두에게 방공포병의 역사로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방공포병의 역사 자료실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욕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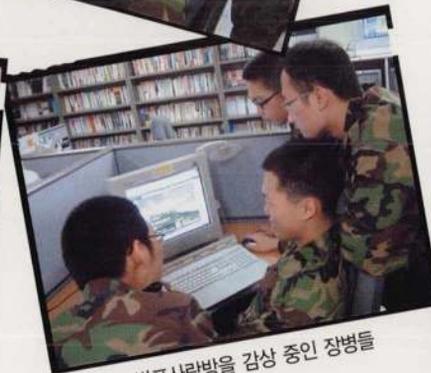
인연은 소중한 것이다. 내가 방포사랑방 덕분에 매달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품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과 노력이 끝나는 날 나는 분명 아쉬워할 것이다. 나에게 방포사랑방이 소중한 인연이듯이 방포사랑방이 우리 방공포병 장병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군 장병들에게 소중한 인연의 끈이 되어주는, 말 그대로 따뜻한 사랑방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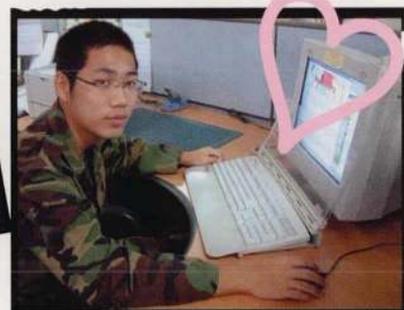
방포사랑방 최고!



방포사랑방을 제작 중인 장동하 중위



방포사랑방을 감상 중인 장병들



방포사랑방 제작을 돕는 송호근 이병

Zoom In

글 이창곤  
중위/공군사관학교

# 생도들만의 명예와 자부심, 사관생도 퍼레이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는 넓은 잔디밭,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사관생도들의 퍼레이드. 공군의 색깔, 감색 예복을 맵시있게 차려 입은 수백 명의 생도들이 군악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탄식을 자아낸다.

## 성무의식, 사관생도 명예의 상징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일반인에게 공개, 학교를 찾은 방문객 및 견학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공사에서 공개하는 퍼레이드 행사의 정식명칭은 '성무의식'이다. 여기서 '성무'는 공사의 별칭 '성무대(聖武臺)'에서 따온 말. 성무의식은 사관생도들의 생도대 생활을 위한 지시사항 하달과 자율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생도 자치행사로 의식, 열병, 분열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된다.

절도있고 정확한 동작으로 실시하는 대형과 대형이동을 통해 부대 및 단체의 명예를 표현하는 성무의식. 생도들은 이 의식을 통해 사관학교의 전통과 사관생도로서의 긍지를 경험하며, 소속감과 단결심, 국가관을 고취한다.

## 학교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

일반인들이 성무의식과 같은 생도 퍼레이드 행사를 접할 기회란 좀처럼 없다. 공식적인 대외행사는 몇 년



에 한 번 실시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전부일 정도. 때문에 성무의식은 학교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이고 특별한 체험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견학 신청이 몰려, 매 성무의식마다 1,000~2,000명의 청소년들이 성무연병장 사열대를 메우고 있다.

지난 9월 말 학교를 방문한 청주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공군 사관생도들의 멋진 모습은 면학에 힘쓸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며, "사관생도들과 함께하는 성무의식은 우리 청소년들이 국기와 국가, 사명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 성무의식 관람은 이렇게

성무의식은 매월 1~2회 실시되며, 정확한 행사 일자와 시간은 공군사관학교 인터넷 견학안내 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개인견학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가능하며, 학교나 기관 등 단체견학은 공사 정훈공보실(043-290-6092)과 일정 협의 후 확정받으면 된다.

성무의식 등 특별한 행사가 없는 평소에도 사관학교 견학은 가능하며, 이때에는 교내의 공군박물관, 하늘공원, 항공기 전시장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1		
2	3	4

1. 10월 1일, 「건군 제5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시 3군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참모총장
2. 10월 9일, 참모총장은 공군의 '정신과 마음, 자존심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공군 핵심가치」를 제정하고, 이를 군내외에 공식 선포하기 위한 「공군 핵심가치 선포식」을 거행했다.
3. 10월 12일, 참모총장은 공군본부에서 「10월 국기강하식 및 시상식」을 주관했다.
4. 김성곤 국회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의원들은 10월 17일, 공군본부와 4개 사령부급 부대에 대한 「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



3



4





1. 10월 19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펼쳐진 「항공 지원능력 평가대회」에서 CN-235 수송기가 플레이어를 투하하며 전술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 10월 12일, 「06 Defense Asia 화력시범」을 위한 예행연습 중 KF-16 전투기 편대가 목표지점에 MK-8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3. 10월 19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화학전을 가상한 모의 긴급제독훈련을 실시했다.
4. 10월 9일, 제19전투비행단은 지상사격장에서 「06년도 단 지상사격대회」를 개최했다.
5. 군수사령부 제85정밀표준정비창은 10월 10일, 「제30회 국가 생산성 혁신대회」에서 군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생산성대상 미래경영 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는 큰 영예를 안았다.



6



6.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58항공수송단이 10월 12일, 파병 두 돌을 맞았다.
8.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19일, 사흘간의 작업 끝에 서울 노원구 태강삼육초등학교에 퇴역 중등 훈련기인 T-37을 기증·설치했다.
9. 제19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는 전군 최초로 F.O.D(Foreign Object Disposal) 전 요원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지급, F.O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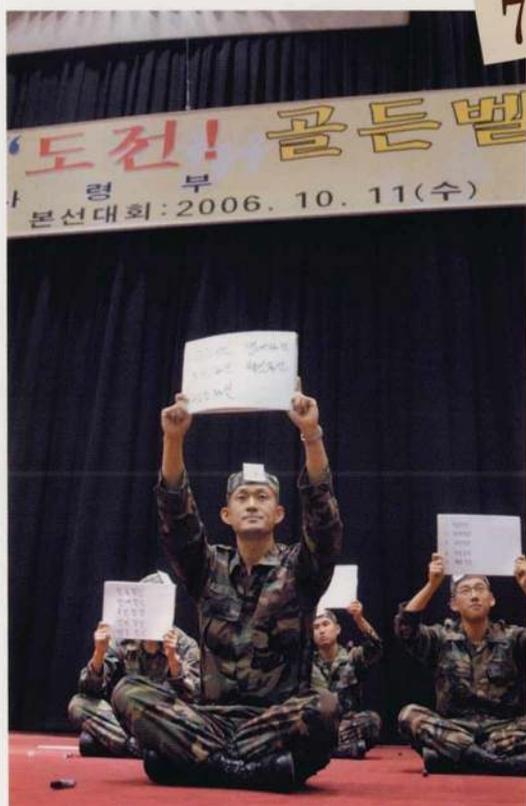
8



9



7. 교육사령부는 10월 11일, 장병 및 군무원의 교육사 문화육성 프로그램과 정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장병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10. 제7항공통신전대는 10월 19일, 평택 예절교육관에서 기지에 함께 주둔하고 있는 미3지역사령부 소속 미군 장병 4명과 한국 장병 1명의 전통 혼례식 행사를 거행했다.





2004년 말, 국방과학연구소<sup>ADD</sup>에 처음 전시된 KF-X 초기 개념모형

## 우리 항공기의 미래,

## 한국형 전투기<sup>KF-X</sup>

그동안 우리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항공기 중 KT-1 기본훈련기, KO-1 전술통계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연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한국형 전투기<sup>KF-X</sup>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진행

한국형 전투기<sup>KF-X</sup> 개발은 2001년 3월 거행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 '국산전투기 개발 계획'을 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념연구(응용연구로 변경)를 수행하고 선행연구 단계에 있다.

### 필요성

한국형 전투기<sup>KF-X</sup> 개발을 통해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유사시 독자적인 대처능력 및 항공전력 수급 능력을 보유할 수 있고, 국산 항공무장 개발·장착 및 성능개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더하여 외화 지출 절감은 물론, 기술향상에 따른 항공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 개발목표

2017년 이후 공군의 Medium급 주력전투기로 활용

될 한국형 전투기는 주변상황과 전투기 개발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최소한 F-16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하여, 2017년 이후의 한국형 전투기 운용조건과 선진국의 전투기 개발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형 전투기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능력은 통일 후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작전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여야 한다. 또한 스텔스화(내부무장 포함), 고기동성 및 기민성 향상, 탑재장비의 고성능화·통합화, 경량화, 자체 보호용 전자전 성능 향상, 정밀타격 무장의 장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목표성능

이상과 같은 여러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형 전투기는 성능면에서는 현재의 KF-16 수준을 상회하고,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은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KF-16과 F-15K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력지수를 가진 전투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개략적인 목표성능(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목	성능 및 특성
기본성능	최대속도	· 최신형 전투기 수준
	기동 한계치	· 최신형 전투기 수준
	실용상승고도	· 최신형 전투기 수준
	전투행동반경	· 한반도 전역 임무수행 후 귀환 가능
	엔진	· 쌍발 터보팬 엔진
	외부장착능력	· KF-16 수준 이상
	기체 크기	· KF-16과 F-15K의 중간 수준
신기술 적용분야	비행제어	· 디지털 FBW <sup>Fly-by-wire</sup> · 자동지형추적 <sup>ATF</sup> 기능 보유
	항공전자	· 통합 모듈 항전 시스템 · 능동형전자식 <sup>IAESA</sup> 레이더 · 전방향 탐지 및 추적용 복합센서
	무장계통	· 내부무장 장착능력 보유 · 공대공·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 및 폭탄 - 국산 유도무기(공대공, 공대지) 장착
	조종실/전장상황인식	· 통합 전방시현 시스템 및 HMCS(Helmet Mounted Cueing System : 헬멧 장착 시현장비) · Data Link
	생존성 향상	· 제한적 스텔스 능력 · 내장형 전자전 장비 · 레이더 및 미사일 경보장치

## 기술이전

현 기술 수준 판단시 체계설계 및 종합, 공력 성능, 구조설계 및 항공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기술을 보완할 경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항공전자·무장제어, 비행제어, 전기체 시험평가 시설, 항공무장 등의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보잉사의 기술이전 내용은 절충교역 분야의 기술이전만 평가할 때는 정부통제 등을 이유로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및 항공무장 분야의 기술이전에는 다소 제한적이나, 시험평가 시설 및 기술제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차기전투기 사업의 본 계약 내용에 포함된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 기술이전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 측에서 요구한 기술이전 내용의 상당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무장제어 기술은 적용된 전투기의 형상 및 운용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기술로 국외에서 제공되어지는 소스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를 직접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분야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소요기술의 70~80% 정도를 확보한 후 잔여기술은 국내 자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을 통하여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수준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차후 전망

KT-1 기본훈련기, KO-1 전술통제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개발 경험과 국내 제반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 국내에 부족한 주요 핵심기술 별도 과제화 및 절충교역 등을 통한 기술확보로 한국형 전투기<sup>KF-X</sup> 개발은 가능할 것이다. 향후 F-5E/F와 F-4D/E 노후 도태에 따른 전투기 부족소요 충족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기동, 정밀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전투기<sup>KF-X</sup>가 하루 빨리 개발 되길 기대해 본다. Ⓣ



# 진정한 <sup>高手</sup>고수란...

제8전투비행단 국궁동아리

# ‘웅비정’

사극열풍史劇熱風이라 할 만 하다. ‘주몽朱蒙’을 시작으로 ‘연개소문淵蓋蘇文’, ‘대조영大祚榮’ 등 고구려高句麗와 발해渤海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에는 ‘모래시계’를 연출했던 김종학 PD와 송지나 작가 콤비가, 130억원이 넘는 제작비와 배용준·문소리라는 최고의 스타를 앞세워 제작한 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가 방영될 예정이어서 사극의 열기는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내노라하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마치 경합競合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볼거리와 숨은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가운데, 모든 드라마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사극’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 바로 ‘사냥 신Scene’이다.

구성은 간단하다. 사냥터 저쪽에서는 병사들이 북과 팽과리를 들고 멧돼지나 사슴 등의 사냥감들을 몰아온

다. 반대쪽에서는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은 장수들이 질풍같이 말을 몰아 달리고 있다. 황제(또는 왕)는 문관들을 거느리고 앉아 미주美酒를 즐기며 사냥을 구경하다 장수들이 겨논 화살이 멧돼지의 등에 명중하면 박수를 치며 말한다.

“과연 명궁이라는 장군의 명성이 허명虛名이 아니올시다!”

## 명궁의 후예들 ‘웅비정’

이러한 사극열풍을 타고 덩달아 인기가 치솟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명궁수名弓手들이 제8전투비행단에도 31명이나 있다. 지난 9월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궁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국궁國弓동아리 ‘웅비정雄飛亭’ 회원들이 바로 그들. 이들은 작년 강원도민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홍천군수배 강원도 궁도대회 3위, 원주시장배 전국 궁도대회 입상, 전국 공직자 궁도대회 단체전 3위 등을 달성해 자신들의 실력 역시 명불허전名不虛傳임을 증명했다.

’03년 5월 취미로 국궁을 즐기던 간부 16명이 뜻을 모아 소박하게 시작한 ‘웅비정’은 2005년 대한궁도협회에 정식 국궁단체로 인가받은 것을 계기로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 들어서는 회원 수가 31명으로 늘었다. 또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궁을 통해 선조들의 용맹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배울 수 있는 ‘국궁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그 구성원도 병사와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동아리의 여성회원이자 자칭 ‘웅비정의 꽃’인 박은정 중사는 지난 5월 1순(5발)을 모두 과녁에 맞추는 ‘몰기’를 달성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마치 영화 「괴물」에서 불화살을 날리는 배두나를 보는 것 같다’는 호평(?)



을 받으며 8비의 여신궁(女神弓)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울  
들어 처음으로 국궁을 배우기 시작한 이대군 중사와 양  
희진 군무원 역시 각각 7월과 4월 첫 '물기'를 달성하  
는 등 회원들의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부대내 국궁  
장에서 연습을 한다는 '웅비정' 회원들은, 화살을 쏘기  
전의 인사(활 뱉니다)와 활을 쏘는 순서(고수와 연장자부  
티)를 통해 웃어른과 동료들을 대할 때의 전통예절을 배  
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 허리·팔·  
다리 등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체력단련 효과도  
있어 국궁의 효과는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았다.

###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웅비정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수송대대장 공원대 중령은  
“우리 국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써온 우리 겨레의 전  
통 활로, 수렵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기원전 2세기  
고구려 시대 맥궁의 기능과 모양새가 지금도 큰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며, “이는 터키(후족)와 로마를 중심으  
로 많이 쓰이다 모양이 크게 변형된 양궁(洋弓)에 비해 우  
리 국궁의 기능과 정확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힘들 때 불평만 하는 자는 하수(下手)요, 힘들 때 찡그  
리고 이겨내는 자는 중수(中手)요, 힘들 때 조용히 웃으며  
이겨내는 자가 고수(高手)’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용히 화살을 겨누며 우리의 것을 지켜낼 힘과  
지혜를 키워가는 국궁 동아리의 모습에서 고수(高手)의  
풍모(風貌)가 느껴진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심신단련(心身鍛鍊)의 좋은 방법인 국궁.

31인의 명궁수들은 화살이 힘차게 과녁을 향해 웅비  
상승(雄飛上昇)하는 모습을 따라 지은 '웅비정'이라는 이  
름처럼, 오늘도 영공방위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나라  
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묵묵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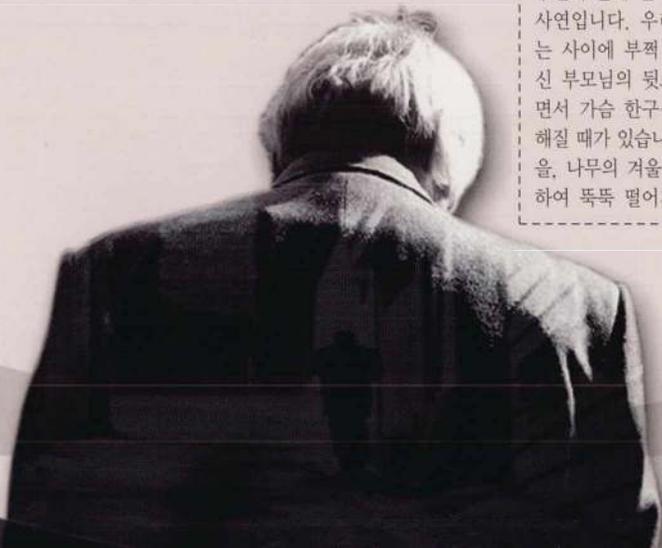
새벽 어스름이 건널 무렵  
 잠에서 깨어 보채는 어린 아이처럼  
 울어 짓히는 山寺의 풍경소리에  
 아버지는 문풍지 앞 어두운 뒷모습만  
 남기시고 은을암 부처께로 향하셨다  
 가끔은 즐긴 는 무비며 따라나서면  
 불상의 뒷모습을 보여주곤 하셨다  
 곧추세운 어리와 풍성한 뒷모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상을 닦아온  
 아버지의 정성

이제는 예순 나이, 폐암 말기 환자  
 병든 자식 위해 불상을 닦아왔듯  
 매일 아침 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리지만  
 당신의 뒷모습은  
 여유로운 부처의 자태가 아닌,  
 손등의 낭자한 혈은과  
 옆구리의 날카로운 창 자욱에  
 금사등이 되어 바짝 마른 뒷모습은,  
 차라리 십자가를 지고  
 굴고 타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

아버지께 나는 유대였나보다

## 詩作메모

우연히 알게 된 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늘어버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을, 나무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똑똑 떨어지는 낙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낙엽쓸기의 귀찮음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낙엽과 같은 사랑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



우표로 보는  
전쟁사



글 김만식  
대위/군역사기록관리단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공군기들(중앙이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



영국공군RAF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8년에 Antigua & Barbuda에서 발행한 기념우표 2종

## 영국을 향한 독일의 끝없는 야욕

유럽을 하켄크로이츠의 깃발아래 뒤덮은 히틀러 앞에는 도버해협 건너 영국만이 미점령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즉시 영국을 공격해서 확실한 승리를 쟁취하지는 지휘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덩커크 철수와 유럽전선에서의 무기력한 패배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영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방법과 협박만으로도 굴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군사공격을 배제하고 있었다.

덩커크 철수 직후에 영국공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불과 400여대 남짓한 비행기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독일공군이 총력으로 공격을 가해 왔다면 영국 역시 독일에게 무릎 꿇고 말았을 것이다. 히틀러가 한달 동안 유유자적 외교적 방법에만 집중하는 동안 영국은 항공기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들은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물자 공출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다.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영국공군은 한달 후 거의 2배에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

### 영국 상륙의 전초전 Battle Of Britain

예상과는 달리 영국이 외교적인 방법에 굴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건히 다져나가자 히틀러는 영국 상륙작전인 ‘바다사자 작전(Operation sea lion : 작전명령 16호)’을 승인했다. 독일군의 해상공격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요약되는 이 바다사자 작전에 대해 일선 지휘관들은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상륙함대가 안전하게 해협을 횡단하여 영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이에 동의한 히틀러는 괴링에게 대규모 항공작전을 지시하는데, 이것이 Battle Of Britain의 시작이었다. 통상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지칭하는 이 전투는, 1940년 7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전개되었다. 독일공군은 폭격기 1,600여대, 전투기 1,100여대 등 총 2,70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였고 영국은 (전투초기) 700여대의 전투기로 맞섰다.

영국공군은 조종사 양성기간이 길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종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예비군

조종사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의 지원자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에서 망명해 온 조종사들을 지원군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독일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던 망명 조종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영국공군의 주력 기종은 허리케인과 스피트파이어였다. 목재와 섬유로 만들어진 허리케인은 심한 손상을 입더라도 지상에서 빠르게 수리할 수 있었으며 허리케인보다 기동성이 좋았던 스피트파이어는 독일공군의 BF-109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영국 전투기였다.

이외에도 영국은 또 한가지 중요한 방어무기인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공군의 동향을 손금 보듯이 꿰뚫고 있는 레이더 덕분에 영국공군은 초계비행에 귀중한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지 않았고 공격 위치와 시간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공군은 기습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던 영국공군으로부터의 강력한 역공에 시달렸다.

11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본토 항공전은 영국에 1,500여대, 독일에 2,000여대의 항공기 손실을 입히면서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만 좀더 효과적이고 저렴한 보복수단에 눈을 돌렸을 뿐이다.

### 히틀러의 보복, V로켓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중구경(中口径) 이상의 대포 사용을 금지당한 독일은 1929년 말부터 비밀리에 발트해 연안의 작은 섬 페네문데(Peenemunde)에서 무인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공기 우선 정책에 밀려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Battle Of Britain)에서 독일공군이 패한 뒤, 히틀러가 저렴한 보복무기인 장거리 비행로켓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흔히 V로켓으로 알려진 이 무기는 말 그대로 '보복'이라는 의미의 독일어 'Vergeltung'의 머릿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전기형인 V-1과 후기형인 V-2로 구분할 수 있다.



발사대기 중인 V-2로켓의 모습



런던을 향해 떨어지는 V-1로켓을 담아낸 마셜제도의 우표



본토 항공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레나다에서 발행한 기념우표



V-2로켓의 개발 책임자였던 폰 브라운, 그는 패전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아폴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순항

미사일과

무인비행기

의 원조라는 평

가를 받는 V-1로

켓은 약 900kg의 탄

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자체 추진력으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 비행할 수 있다.

1944년 3월에 처녀비행에 성공

한 이후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1945년 4월까지 약 32,000발이 생산

된 V-1은 1944년 6월 런던을 향해 15발

이 발사되면서 그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했

다. 영국을 향해 발사된 약 2만 2,000발 중 런

던에는 2,400여 발이 떨어져 4만 5천여명의 사

상자(5,000여명의 사망자 포함)를 발생시켰다. 하

지만 V-1은 유도기술 부족으로 명중률이 매우 낮았고

속도도 시속 580km에 불과했기에 영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 많은 수가 공중에서 격추되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폰 브라운Braun, Wernher von이 설

계책임자로 개발팀을 이끈 V-2로켓이다. 1942년 10월 발사실험

을 한 V-2로켓(A-4라고도 불림)은 알코올을 연료로 하고, 액체산소

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의 원조라

고 할 수 있는 이 V-2로켓은 1930년대부터 페네민데에서 개발을 시작하

였으며, 7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350km의 사정거리를 보유하였다. 1942

년 6월, 첫 발사에 성공한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음속을 돌파하였다. 독일은

1943년부터 V-2로켓의 생산을 시작하여 프랑스 지역에 고정식 발사시설을 설치

하였지만, 연합군의 폭격 때문에 이동발사 방식으로 전환한 뒤에야 V-2로켓을 발사

할 수 있었다.

1944년 9월 6일 파리를 향해 발사된 2발을 시작으로 1945년 3월 27일까지 영국, 벨기

에, 네덜란드 등의 주요 도시에 약 3,200발이 투하되었다. 특히 영국 1,300여발, 안트베르펜

1,600여발 등 영국과 벨기에가 집중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V-2로켓 역시 초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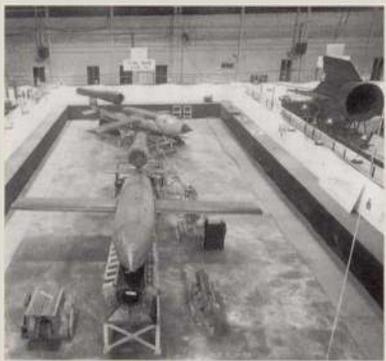
유도장치로 명중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위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속도(시속 5,760km)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었다. 종전 후 V-2로켓의 개발기술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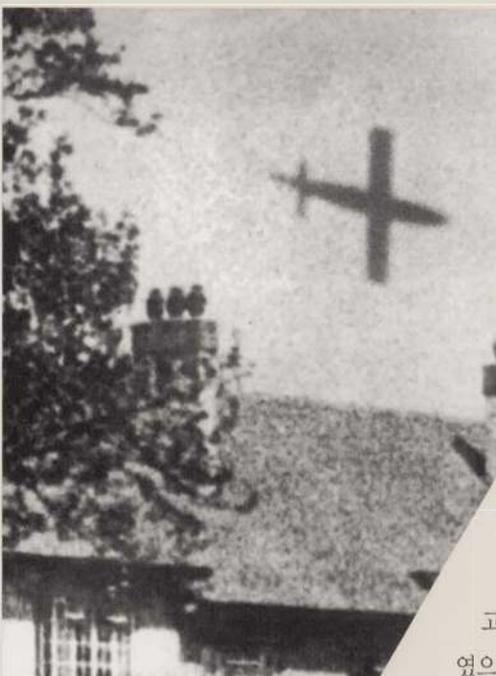
국과 소련에 넘겨져 우주탐사 계획과 미사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④



"영국은 외톨이다. 전쟁은 끝났다. 히틀러에 대항하려는 생각은 버려라."라는 스티커가 붙은 독일의 편지봉투



생산라인에서 대기 중인 V-1로켓



런던 주변을 날아가고 있는 V-1로켓



##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 사나이



남아프리카 어느 시골 농가에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근처 어디 산 밑에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다는데...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농가 주인은 나그네의 질문에 두 귀가 번쩍 떠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소득 없는 농사에 슬슬 실증이 나  
그만 두고 싶던 차에 다이아몬드 광맥이라니!

찾아내거만 하면 지긋지긋한 시골 동네에서 벗어나  
 땀땀거리며 호화롭게 살 수 있을거란 생각에 농부는  
 잔뜩 들떴습니다. 그리고는 집과 논과 소를 모두 팔아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이아몬드를 찾아 전국을  
 떠돌 농부는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고 돌아 자신이 살던 그 시골 동네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던  
 집터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살던 허름한 집은 간 곳 없고, 그 곳에는  
 왕궁 같은 으리으리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상태였습니다.  
 농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재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소?"  
 "다들 이 집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고선 팔아서 도시로 떠났지요."  
 "네? 아니... 그럼 저 난로를 만든 원석은요?"  
 "아, 저건 제가 얼마 전에 뒷마당에서 캐낸 걸 갖다 놓은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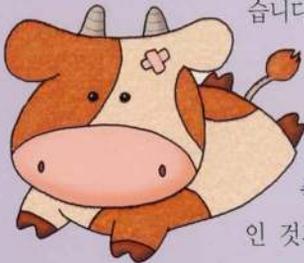
# 상반된 단어들의 말 맛

## 실업자, 육군 사고력 계발 교관이 되다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짤린 사나이가 있습니다. 졸지에 깡통을 찬 그는 구직신청을 하는데 운이 좋으려니까 덜커덕 새 일자리가 생깁니다. '육군 신병들 army recruits' 에게 사고력 思考力 계발 기술을 지도하는 교관이 그의 새 일자리입니다. 군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재와 교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의 첫 근무는 시작됩니다. 그는 신병들이 읽는 책이나 잡지의 글을 똑같이 베껴게 한 뒤 그걸 요약하도록 시키고는 자신도 독서를 합니다. 그러자 한 신병이 교관한테 뭘 읽느냐고 묻습니다. '근친상간 incest', '살인 murder', '음모 intrigue' 가 소재인 <햄릿>을 읽는다고 하자 신병들은 겁도 없이(!!) 함께 읽자면서 좋아라합니다. 그때부터 신병들은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쳐지는 사고력 계발 프로그램의 노예(!!)가 됩니다.

## 상반된 단어들로 말 맛을 낸 모순 형용어법

이건 영화 <르네상스 맨 Renaissance Man>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의 초기 가제목은 <Army Intelligence>였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한번 거들떠볼까요? '군 정보국' 이란 뜻이지요. 보통의 경우 무력력, 즉 군사상의 힘은 지적인 것과는 상반되게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나 정보를 뜻하는 intelligence가 army와 함께 쓰여 묘한 엇박자 조합을 만들어내죠? 이런 모순된 형용어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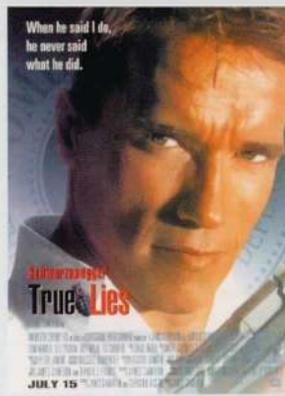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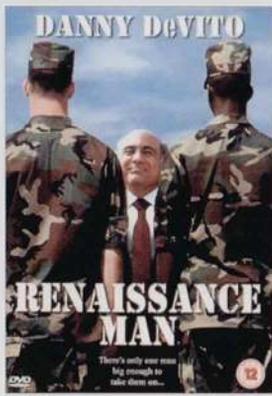
영어로 oxymoron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교관이 oxymoron에 관하여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 신병이 'ox moron 멧탱구리 황소' 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우스꽝스러운 설정이 있습니다. 교관이 대뜸 "No, no, not ox moron, Oxymoron!"<sup>아냐, 멧탱구리 황소 말고 모순 형용어법이야</sup> 이라며 정정해주지요.

참 흥미로운 건 oxymoron이 두 개의 그리스어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 또한 모순 형용어법에 의한 조합, 즉 'oxys(예리한: keen, sharp)' 와 'moros(어리석은: foolish)' 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호러 영화 <몬스터 맨 Monster Man>에 나오는 대사인 'Fucking virgin? Isn't that an oxymoron?' 도 모순 형용어법의 좋은 사례이지요. 성경험이 없는 virgin 과 fucking의 조합이니까요. 물론 이때의 fucking은 성경험과는 무관하며 강조어로 쓰였지만요! 이처럼 모순 형용어법은 '서로 상반되는 contradictory'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인 Little Big Hero>의 영어 제목이나 영어의 'cruel kindness 가혹한 친절', 우리말의 '따뜻한 질책 처벌!

## 제임스 카메론의 참된 거짓말!

흥행 제조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트루 라이즈>의 영어제목도 좋은 사례입니다. 그 뜻이 '참된 거짓말' 이니까요. 1급 비밀요원 해리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첩보원이고 집에서는 컴퓨터 판매사원으로 행세합니다. 그런 그가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테러리스트를 추격하라는 지령을 정부로부터 하달 받습니다. 한편 해리는 아내가 비밀리에 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제 해리는 두 가지 중대한 임무에 모두 신경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악당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에서 해리의 아내 헬렌이 "I married Rambo, 난 람보랑 결혼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카메론 감독이 <람보 2>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경력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대사이지요. 해리Harry가 타는 수직이착륙 폭격기의 기종이 해리의 이름과 비슷한 Harrier 제트기인 건 혹시 우연의 일치? 📍

#### 생활 속에 녹아있는 모순 형용어법 영어표현

- jumbo shrimp  
식당 메뉴에 있는 새우 요리가 코끼리 사이즈라니?!
- fresh frozen jumbo shrimp  
냉동인데 어떻게 신선하담?!
- old news  
새로운 소식이 news인데 어떻게 '오래된 새 소식' 이 있지?!
- same difference  
다른 게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똑같은 다른 차이' 지?!
- final draft  
초고草稿 원고가 draft인데 '최종 초고 원고' 라니?!
- light heavyweight  
'경량의 중량급' 이라니?!
- original copy  
원본을 복사한 게 copy인데 '원본 사본' 이라니?!
- one-man band  
우리의 사람들로 구성돼야 band인데 1인 밴드라니?!
- Sound of Silence  
소리가 없는 상태가 silence인데 '소리 없는 상태의 소리' 라니?!
- little giant  
큰 사람이 giant인데 '작은 큰 사람' 이라니?!
- educational television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상자가 TV인데 '사람을 바보로 교육시키는 TV' 라니?!
- honest politician  
거짓말 전문가가 politician인데 '거짓말 안하는 거짓말쟁이 정치인' 이라니?!





## 눈물을 기억하라

눈물에 들어있는 소금기는  
 사람이 바다에서 왔다는 흔적이다  
 아직도 바다를 잊지 못하고 있다  
 눈물은 삶의 파도가 거칠 때마다  
 바닷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이다

어느 시인은 '눈물'을 이렇게 노래했다.

그렇다면, 생명 진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래의 고향이 바다이기 때문일까?

웃음과 눈물은 마음을 지닌 인간만의 특징이다.

특히 하염없이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생명체 중 인간이 유일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우선 나만해도 그렇다.

학창시절,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며 유달리 감상적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조차도, 영영 소리내어 울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슬픈 영화를 봐도, 기쁜 소식을 접해도, 일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인간사(人間事)라 여길 뿐, 이제 웬만한 슬픔과 기쁨에는 반 백년 넘게 산 사람처럼 그저 무덤덤하기만 하다. 만약 감정 측정지수가 비등점이 100이라면 나의 감정지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슬픈 장면을 보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거늘, 나는 어찌다가 이렇게 감정에 무디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눈물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사는 게 무섭게 치열해진 요즘, 사람들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눈물은 나약함의 산물로 여겨져,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잘 흘리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타인을 위한 눈물은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리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눈물을 참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슬픔은 화火的의 경우보다는 덜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삶의 흐름도 방해하는데, 만약 속에서 슬픔을 차단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답답하거나 허전하거나 외롭거나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게 되는 정신질환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병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니,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현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다.

결국, 눈물을 흘림으로써 마음의 응어리와 감정의 맺힘을 풀어주고, 심리적인 정화 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메말라 있는 마음에서 어떻게 눈물을 불러올 수 있을까?

여기 한 명상가가 자신 속에 억압된 슬픔을 풀어내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보겠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의 긴장을 다 푼 상태에서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불러온다. 기억을 살려서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때를 떠올려본다. 혹은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것을 가만히 느껴 본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거나,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결과가 너무나 허망하게 되었거나, 남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었거나, 주변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홀로되었을 때 등등을 가만히 떠올려본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준다. “네가 참 많이 힘들구나.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고 께안아 줄게.” 이때 가만히 오른 손을 들어서 가슴을 쓰다듬어 주어도 좋다.

명상가의 체험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실제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고 때로는 저절로 눈물도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면 험한 세상에 다시 뛰어들 용기가 생기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다고 하니,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쯤 시도해보면 좋을 듯 하다.

보부아르는 “눈물은 탄식이며 동시에 위안이다”라고 했다. 눈물은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눈물은 웃음과 함께 고통을 살아가는 인간의 방어기제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메말라있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는 건 어떨까?

단, 눈물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이 더욱 많기를... 그리고 당신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가슴 따뜻한 그대가 있기를... ❀

모든 존재는 저마다 슬픈거야  
그 부피만큼의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비로소 세상을 다시 보는 거라구

아무도 상대방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그것을 닦아내 줄 수는 있어  
우리 생에서 필요한 것은 다만 그 눈물을 서로 닦아줄 사람 뿐이니까

네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 공지영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





## 환절기 복병

# 알레르기성 비염

###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는 외부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이상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증상도 유발하지 않는 어떤 물질항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 반응을 유발한다. 항원에 노출되면, 면역계에서는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몇몇 면역세포들이 그 항원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그 후 재접촉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

###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와 인후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아침에 수희에서 수습회의 발작적인 재치기와 코막힘, 맑은 콧물, 그리고 코가려움을 주 증상으로 한다.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그 외에 동물의 털이나 비듬류, 바퀴벌레, 곰팡이,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쑥, 국화 돼지풀 등이 주요 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 피부단자검사란?

피부단자검사는 어느 물질이 환자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찾는, 가장 오래되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검사로, 흔히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들의 추출물 희석 용액 한 방울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바늘로 찌르고 나서 피부 반응을 관찰한다.

### 약물요법

#### ○ 비충혈제거제 혈관수축제

비충혈제거제는 코 점막 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울혈증상(점막의 부종) 및 점액을 감소시켜 코막힘은 호전되지만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에는 영향이 없다. 비충혈제거제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나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점적액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증상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 먹는 종합 감기약에는 대부분 약간의 비충혈제거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소용 혈관수축제를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주일 이상 사용할 경우 약물을 사용해도 더 이상 혈관수축은 일어나지 않고 혈관이 오히려 다시 확장되고 증상이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심장병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심장 박동을 빠르고 불규칙하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은 혈관의 확장과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코 점막의 감각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가려움증, 재채기 및 맑은 콧물 등을 유발시킨다. 항히스타민제는 이러한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 혹은 호전시킨다. 그러나 코막힘에는 효과가 없다.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변보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더하여 술을 먹으면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작용이 더 심해지므로 금주해야 한다.

비중혈제거제와 항히스타민제를 병용하였을 때가 어느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때보다 증상 완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 코티코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몸에서 염증 반응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아줌으로써 알레르기성 비염에 사용시 코 점막의 염증을 치료,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소용 코티코스테로이드제는 코 점막의 과민성이나 혈관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며, 비만세포를 안정화시켜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거의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약물로 효과가 없을 때, 혈관수축제로 인한 약물성 비염, 호흡에 장애를 줄

정도로 비강을 꼭 채우고 있는 비용종의 경우 경구용 코티코스테로이드제를 단기 간만 사용한다.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쉽게 멎거나, 여드름, 달

처럼 둥근 얼굴, 체중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더 오래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을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규칙적으로 식염수로 비강을 세척하는 것은 면역 세포인 호산구의 비강내 숫자를 줄여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유행하는 면역요법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코막힘에는 수술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 회피요법

마지막으로 일명 알레르기성 비염의 예방을 위한 자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회피요법을 소개한다. 회피요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완전 치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 털 있는 애완동물  
동물 기르지 않기
  - 진드기가 살 수 없는 천을 씌운  
침구와 가구를 사용하기
  - 실내의 먼지 자체를 줄이거나 실내 습도를 낮추기  
(50% 이하)
  - 긴 잔디나 깎인 잔디가 있는 곳을 피하기
  - 여름에는 문과 창문을 닫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공기정화기가 있는 건물에서 보내기
  - 꽃가루 수가 많은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는 밖에 나가지 않기
  - 자동차에 꽃가루 여과기(필터) 갖추기
- 부디 지긋지긋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공군인들이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쉽표하나,休

글·사진  
김기현  
여행기자



#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영국 관찰기(上)

# 바비



1. 오래된 타자기를 비롯해 옛 경찰 모자까지 팔고 있던 골동품 가게
2. 공원 같은 동네 공동 묘지
3. 셰필드행 기차를 기다리던 런던 근교 기차역
4. 체리티 샵
5. 근처 공원. 오랜만에 햇살이 좋았던 오후, 많은 이들이 옷을 벗고 누워 광합성을 하거나 축구를 한다.
6. 동네 사채리아 빵가 으체통



많은 친구들이 영국으로 떠났다. 여행을 하러 혹은 공부를 하러, 또 어떤 친구는 일을 찾아 런던행 비행기를 탔다. 그들은 영국에서 이메일로 영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다녀와서도 한동안 영국에 대한 수다스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모두들 조금씩 다른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친구는 런던에 매혹되어 빨간 이층버스와 클럽의 문화에 대한 예찬론을 폈고, 다른 친구는 런던이 싫어 시골로 떠난 여행에서 겪은 영국에 대한 여행담을 늘어놓고, 또 어떤 이는 비싼 물가와 지긋지긋한 날씨, 예민한 영국인에 걸린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 머리 속의 영국은 친구들의 이야기와 책에서 얻은 정보로 뒤섞여 '알 수 없는 나라=영국'으로 남아있었다.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가며 영국에 대한 자료도 다시 읽어보고 영화도 챙겨보며 영국 관찰 준비를 했다. '런던 한 도시만 보고 영국에 대해 말하지 말고 너무 욕심 내지 말자', 그리고 '걸으면서 느끼자'는 아주 가벼운 원칙만 가지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앗! 한 가지 빠진 원칙. 가능하면 '사진은 많이 찍자'고 생각했다. 그 덕분에 무거운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느라 가볍지는 않은 여행을 해야 했다.

### 변덕스러운 영국의 날씨

대학시절 한국어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왔던 영국인 친구와 같이 산적이 있었다. 참 좋은 친구였고 언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 보자는 인사로 헤어졌었다. 그 친구와의 약속도 지키고 신세도 질 겸 런던 여행에 앞서 셰필드로 향했다. 셰필드는 런던에서 에든버러로 가는 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영국에서 3~4번째로 큰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 소도시 같은 분위기다. 셰필드 대학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고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곳이다. 작은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넓은 창이 있는 방에 짐을 풀고 슬슬 영국 관찰을 시작해 보았다.

시차 적응이 안된 덕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꽤 좋아 반소매 티 하나만 입고 걷는데, 동네 한 바퀴쯤 돌기 시작하자 구름이 끼더니 금세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계속 걸었다. 말로만 듣던 영국의 변덕스런 날씨를 첫 날부터 제대로 경험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날씨가 좋아져 공원처럼 꾸며 놓은 공동묘지에 들렀다. 우리나라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다르고 묘지 문화도 달랐다. 이상하게도 묘지인데도 무섭지 않았다. 조용한 숲 속

공원 같은 묘지에서 가족이 남긴 비문을 살피며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았다.

여행을 자주 다닐수록 새로운 풍경, 진기한 모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나 그들에게 익숙한 곳을 찾고 싶어진다. 이 동네에서 살아 온 친구를 따라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골목도 걸어보았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영국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는 표현도 배워보았다. 발음이 어려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 해보았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있는 펍<sup>pub</sup>에 들어가 그들처럼 생맥주 한 잔 들고 안주도 없이 서서 이야기 하며 마셔보았다.

영국 특유의 비까지 내려준 첫 날, 생각보다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이다. 영국에서 사는 사람에겐 지극지극 할 만한 날씨겠지만 나 같은 여행자에게 이런 번덕스러운 날씨마저도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국 날씨다.

### 끝없는 초원, '피크 디스트릭'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를 싸서 '피크 디스트릭' 행 버스를 탔다. '피크 디스트릭'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같은 곳으로, 전부를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초원, 절벽 등의 멋진 풍경이 이곳에 모두 있다고 한다.

우리는 간단히 한나절 넓은 초원을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선택했다.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는데 출발할

때는 괜찮은 날씨였지만 도착할 무렵에는 비구름이 멀리서 몰려왔다.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내릴 것 같다. 양떼가 자유롭게 방목되는 푸른 초원을 오랫동안 걸었다. 자주 내리는 비 덕분에 영국에는 푸른 들판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끝이 안 보이는 초원을 걷고 또 걸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흠뻑리는 비를 맞으며 영국의 들판을 걷는 건 생각보다 신나는 일이다. 비를 적당히 맞으며 별 생각 없이 걷는다. 계속 걷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속도 가벼워진다. 복잡했던 많은 생각이 정리된다. 늘 걷던 동네가 아닌 머나먼 나라 영국의 들판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행복했다. 양떼를 보고, 흘러가는 비구름도 보고, 잠시 비를 피해 나무 밑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저만치 양떼도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다.

### 시간의 흔적과 함께... 영국의 체리티 샵

며칠 간 친구 집에 머물며 펍에 가서 축구도 보고, 영국식 아침도 만들어 먹었다.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영국식 아침식사)는 별로였지만, 셰필드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가게도 둘러보았다. 셰필드뿐만 아니라 영국 어느 도시에라도 곳곳에서 체리티 샵을 찾을 수 있다. 체리티 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곳인데 쓰던 물건을 기증받아서 싸게 팔고 그 수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곳이다. 티스푼, 접시, 인형, 청바지, 잡지...



수많은 물건이 있고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비싼 물가 때문인지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서인지 영국인들은 체리티 샵과 중고 가게를 아주 잘 이용한다. 가난한 여행자인 나는 물론이고.

독특한 중고 가게도 정말 많다. 옛날 신문을 파는 곳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신문도 찾을 수 있었다. 중세 시대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가게도 있다. 셰필드 시내 곳곳의 각종 중고 가게를 둘러보며 시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옛날 신문은 그 당시에는 몇 백원했을 뿐이고 한 번 보고 그냥 던져버렸을 물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이란 나라는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특히나 중요시하는 것 같다. 영국에는 여전히 오래된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조금씩 고치고 변화를 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나 첨단 건물을 보려고 영국을 찾기도 하겠지만 오래된 가구, 시간의 흔적이 남겨진 거리와 건축물 때문에 좀 더 찾는 게 아닐까? '우리도 좀 더 남겨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고려시대의 가구와 조선시대의 건축물을 잘 남겨두었다면 많은 이들이 더 많이 서울을 찾았을 텐데... 영국의 옛 거리를 걷다가 낡은 의자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사진기를 꺼내어 세월의 흔적이 남은 지저분한 나무 문짝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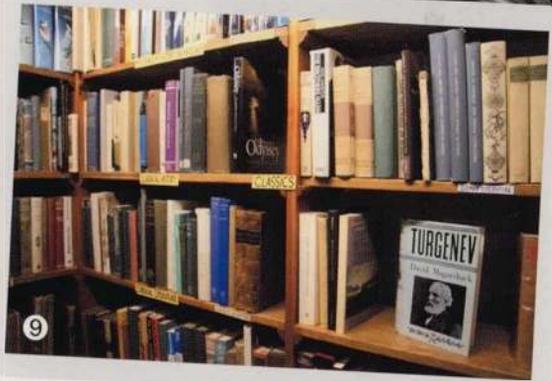
영국지도를 꺼내놓고 어디로 떠날지 생각해 보았다. 에딘버러, 맨체스터, 뉴캐슬..., 가고 싶은 곳이 많다. 영국의 비싼 교통비와 여정을 감안해 런던으로 가기로, 대학의 도시 옥스퍼드로 가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곳은 어떤 동네일지 궁금하다. 옥스퍼드에선 영국에만 있다고 하는 B&B라는 숙박시설에서 지내기로 하고 어렵게 예약도 해 두었다. 롤리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가이드 책에 밀줄까지 그어가며 예습을 했다. 언제나 낯선 도시, 새로운 도시로 떠나기 전날 밤은 설렌다. ④



7



8



9

- 7. 양떼와 초원이 펼쳐진 피크 디 스트릭
- 8. 체리티 샵 풍경
- 9. 중고서점
- 10. 정겨운 동네 야채가게



10



제대군인 길라잡이

글 김영희  
제대군인지원센터  
홍보담당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면 사회가 보인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상설기관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이번호부터 5회에 걸쳐 제대군인의 취·창업 활동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 내용과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상담



센터 주간회의

**5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 또는 전역 예정자라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소장 조몽환)를 활용해보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진로상담으로 자신의 진로 모색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MBTI(성격검사), STRONG(직업 흥미검사) 등 전문적인 진단도 실시된다.

###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 혜택

진로상담이 끝나면 개인의 특기, 병과 등을 고려한 경력 설계가 시작된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력서 컨설팅, 면접지도 등 1대1 교육이 병행된다.

창업희망자는 업종 및 상권, 입지문제 등 전 과정에 걸쳐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법률·세무·특허·부동산·금융·컨설팅·시설·창업지도 등 8개 분야 전문 자문위원에게 기술적 자문도 받을 수 있다.

### 매주 화·수요일에 열리는 워크숍 활용

매주 화·수요일에 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는 취·창

# 제대군인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업 전략 워크숍에서는 1 대 1 컨설팅은 물론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채용시장 현황, 면접요령, 창업 성공 노하우 등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가 가득한 브이넷** [www.vnet.go.kr](http://www.vnet.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브이넷 [www.vnet.go.kr](http://www.vnet.go.kr)에 회원 가입을 하면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채용 공고도 확인 가능하다.



워크숍 교육



창업교육

##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교육비 지원

더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23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며, 사설학원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도 지급된다.

특히 무료 온라인교육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다. 개설된 교육과정은 자격증, 정보기술, 리더십, 경영일반, 외국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호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이용방법과 역할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

**제대군인지원센터 찾아가는 길**

전 화 : 1588-2339(전국대표전화)

주 소 : (137-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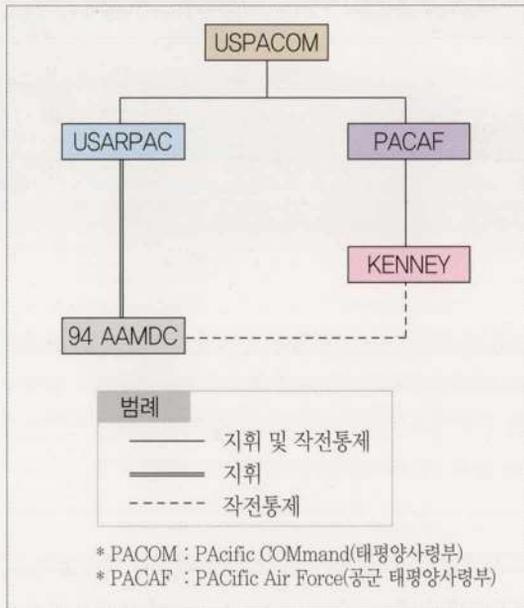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10m 거리



## '06년 미 방공부대 견학을 마치고

'06년 UFL 연습을 마치고 방공포병사령부의 미측 파트너인 94th AAMDC<sup>1)</sup>를 7일간 견학하였다. 방공포병사령관님을 포함하여 방공포병 장교와 부사관 7명이 함께한 일정이었다. '01년부터 장교와 부사관 7~8명을 선발하여 미국 방공포병부대 견학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방포사는 금년에는 '05년도에 창설된 94th AAMDC를 중심으로 지휘 및 작전통제 관련부대인 USARPAC<sup>2)</sup>, KENNEY HQ<sup>3)</sup> 부대견학과 진주만에 위치한 에리조나 메모리얼을 선상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다.

9월 3일, 94th AAMDC가 위치한 하와이로 출발하기 위하여 견학자들은 방공포병사령부로 모였다. 9시경 사령부 회의실에 집합하여 출국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를 경유하여 9월 3일 아침 7시 50분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하와이는 우리나라와 19시간 시차가 있어 우리는 시간을 역행하여 날아갔다. 도착 후 미 하와이 연락장교인 송택환 대령(진급 예정자)과 만나서 하와이 견학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소인 미 해군 외래자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풀었다. 이렇게 우리의 견학은 시작되었다. 비록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 문제로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처음으로 하와이 여행을 하는 설렘 때문인지 마음만은 매우 가벼웠다.



USARPAC, KENNEY HQ 및 94th AAMDC 지휘 및 작전통제 관계

견학 첫째날인 9월 4일 월요일. 이날은 미국 노동절 휴무일인 관계로 우리는 지역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와이키키 해변, 다이아몬드 헤드, 한국 지도마을, 하나우나 베이 등 아름다운 하와이의 경치와 하와이 고유 민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폴리네시아 민속촌 등을 볼 수 있었다. 하와이의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깨끗한 자연이란 어떤 것인지 절감할 수 있었다. 공해가 없어서인지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다.

견학 둘째날, 주 견학부대인 94th AAMDC와 지휘 통제부대인 USARPAC를 견학하였다. 먼저 USARPAC 사령관 중장 Brown III와 94th AAMDC

1) AAMDC : Army Air & Missile Defense Command 육군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사령부

\* 미국은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이 아닌 육군 소속임.

2) USARPAC : Us ARmy Pacific Command의 육군 태평양 사령부

3) KENNEY HQ : Warfighting HeadQuarter의 별칭

\* 우리나라의 TACC(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항공통제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대



1. USARPAC 사령관 접견  
2. 94th AAMDC 사령관 접견  
3. KENNEY HQ 부사령관 접견



의 사령관 준장 Seward를 접견하는 시간을 가진 뒤 각 부대 현황 브리핑을 받았다. 더하여 94th AAMDC의 주요 간부들과 '06년 UFL 연습결과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저녁에는 만찬이 준비되어 주요 간부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실무요원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식사시간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고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기에서 잠깐 미 방공포병 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 미 방공포병은 1개의 방공포병학교와 2개의 AAMDC(32th 및 94th AAMDC)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공포병학교와 32th AAMDC는 미국 텍사스에, 94th AAMDC는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다. 방공포병학교는 전 방공포병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양성·보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32th AAMDC는 미국 본

토의 방공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94th AAMDC는 미국 본토 외 미군이 배치된 지역(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의 방공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 방공포병 부대 또한 94th AAMDC 지휘 통제하에 있는 부대이다. 현재 미 방공포병부대는 적 탄도탄에 대비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더불어 저고도 공중위협에 대비한 어벤저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야전포병, 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 등 증가되는 공중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 중에 있다.

셋째날에는 94th AAMDC를 작전통제하고 있는 KENNEY HQ를 견학하였다. 사령관이 부재인 관계로 부사령관인 준장 Ihde를 접견한 뒤 부대 현황과 주요 부서의 임무, 역할에 대하여 소개를 받았다. KENNEY HQ는 작전범위가 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매우 다양한 환경과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KENNEY HQ는 우리의 주 방문부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애리조나 메모리얼 선상 탐험
2. 94th AAMDC와의 전술토의
3. 업무토의

하고 매우 자세하고 성의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어 환태 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날인 9월 7일에는 대표적인 전사적지인 애리조나 메모리얼을 선상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애리조나 메모리얼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시 침몰당한 애리조나 함과 그 선원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침몰한 애리조나 함 위에 건립한 박물관이다. 피해지역의 유적지를 보면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공포병인으로서 나의 소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견학 마지막 날에는 별도의 계획없이 개인별로 자유 시간을 가졌다. 언제나 현재 속에서 바쁘게만 지내왔는데 금번 견학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호놀룰루 시내를 걸으면서 의외로 한국 교포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 하와이에는 5만여명의 교포가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94th AAMDC인원들과 하와이 공군 연락장교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금년도 미 방공부대 견학을 통하여 한미 방공포병 작전 향상 및 유대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혁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금년도 견학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들이 공군과 방공포병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더하여 이러한 선진 작전개념 및 무기체계에 대한 견학 기회가 오늘도 야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끝으로 견학기간 내내 성심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일정을 관리해준 송택환 대령(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 저침없는 신세대 병사들과의 만남

- 교육사령부 1박 2일 현장 체험기 -

“질문 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었다. 그 날 우리는 처음 만났었고, 더군다나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나는 영관장교이고, 그들은 훈련병인데도 더욱 거침없어 보였다. 당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과 난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생활관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질 때는 이별을 아쉬워했다. 당초 나와 동료들은 훈련병인 그들을 만나기 전에 혹시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을 불편해 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거침없었고, 자유로워 보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했다. 개인의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자들로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무엇이 우리 세대와 그들 세대를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우리 공군대학 학생장교들의 현장체험은 앞으로 전국 각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로 근무할 영관장교로서 갖 입대한 병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이해해보라는 교육사령관님의 배려에서 시작되었다. 훈련병들을 만나기 위해 70여명의 영관장교들이 각각 배정된 훈련생활관을 찾았다. 이렇게 많은 영관장교들이 그들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일정은 1박 2일. 시기는 훈련 3주차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이제 훈련강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 많이 힘들어할 때’라며 만나면 격려를 많이 해주려고 훈련교관은 귀땀했다.

그 날 저녁, 우리는 생활관에서 함께 총기 손질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찾은 생활관의 훈련병들은 대학생, 유학생, 태권도 사범, 학원강사, 요리사 등 직업들도 정말 다양했다. 출신 지역도 전국적으로

퍼져있고, 나이도 20살의 어린 훈련병부터 27살의 나이든 훈련병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다양한 병사들이 서로 융화가 잘되는 것을 보고 나는 의아했다.

나의 의문은 교관들과 만나면서 풀렸다. 병사들의 이러한 면모도 신세대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신세대 병사들은 고된 훈련과 강한 규율도 스스로 원하면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합리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었다. 특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융화가 놀랄 정도로 잘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공군대학으로 돌아오면서 학생장교들은 이번 기회가 신세대 병사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 지휘관 참모로 근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사들도 우리를 만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뿌듯해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나 스스로도 이번 기회가 영관장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신세대 병사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나와 우리 부대, 우리 조국이 튼튼할 수 있는 것이다.Ⓢ





# 나의 정든 애마를 떠나보내며

- 제38전투비행전대 F-5E/F 고별비행을 마치고 -

1985년부터 제38전투비행전대 111전투비행대대의 주기종으로 24시간 영공방위와 비상출격 임무를 맡아 온 F-5. 10월 13일, 38전대에서의 비행을 종료하는 의미로 기지 활주로에서 'F-5 최종비행 축하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번 F-5 최종비행은 38전대에서 한·미 연합으로 수행했던 완벽한 작전임무 성공을 축하하고 한·미간의 영원한 우정과 신뢰의 뜻깊은 의미를 담아 美8전투비행단 F-16과의 편대비행으로 실시되었다.

38전대는 이번 'F-5 최종비행 축하행사' 후 F-5 출격임무를 종료하고, 신기종을 전진 배치하여 한·미 연합작전 임무의 성과와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월간공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종료하는 F-5를 떠나보내며 애기愛機를 친자식 같이 돌봐왔던 정비사의 아쉬운 소감을 들어보았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가족이다. 이전에 아들을 군에 보낼 때, 딸을 시집보낼 때 하염없이 떠나보냈지만 그 뒷모습은 차마 보지 못했다. 나의 가족과 더불어 인생의 동반자였던 나의 애마(F-5 항공기)를 10월 16일 떠나보냈다. 아들은 제대 후 다시 돌아왔고 딸 역시 가끔씩 찾아왔지만 나의 애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가 버렸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볼 수 없어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애마는 이제 안녕이라며 엔진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처량하게 내뿜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몸 상한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저 멀리 새 주인을 찾아 떠나가는 애마가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애마와 함께 보급자리로 돌아왔었는데 애마가 없는 나의 보급자리는 더욱 허전해 보였다.

20여 년 전 나의 애마가 우리 기지에 왔을 때, 마치 장가갈 때처럼 내 신부가 입장하기 전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마음, 공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속받을 때 갖는 두려운 마음 등 무어라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젊고 힘찬 말을 다루기가 힘들 듯이 나의 애마는 넘쳐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와 서로 뒹굴고 싸움도 많이 했다.

애마가 아프다며 밤을 새가며 고통을 호소할 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호통도 쳐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었다. 그러다 겨우 달래서 내보냈는데 우려와는 달리 다시 우렁차게 하늘로 솟아 오를 때의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겪을 수 없는 한편의 추억으로 간직하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면서 목이 메어 온다. 행가 한구석에 쌓여있는 전투화, 정비화, 운동화 등 그 발자취가 서려있는 이 곳을 누비는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애환이 서리는 듯하다.

공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무장일선정비반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전우들. 때로는 부모처럼, 형님·아우처럼 생각하며 부족한 나를 믿고 각자 개개인의 이름석자 명예를 걸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는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 애마와 함께하였던 소중한 만남을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이를 인연으로 다시 멋진 만남을 기약해 본다. F-5와 함께한 추억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



1



2



3

- 1, 2. 美8전투비행단 F-16과 고별 편대 비행을 한 F-5
3.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하는 전투기
4. 최종 임무를 수행한 111세대 최병두 소령(진)
5. 고별 임무를 기념하는 물대포
6. 그동안 수고한 F-5, 파이팅!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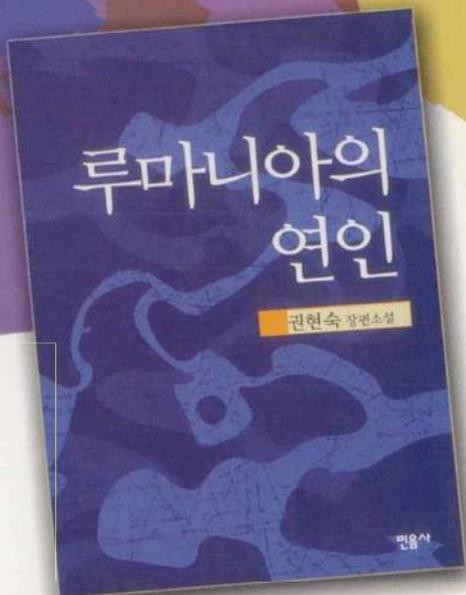


6



권현숙 작

## 「루마니아의 연인」



그리움의 자로  
사랑의 깊이를 재다

현실의 사랑은 소설의 소재가 되고 소설 속의 사랑을 이를 읽는 이들에게 다시 현실의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추동시킨다. 소설은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류가 스스로에게 선물해온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이 범주에 들 수 없는 소설은 결코 문학이라 이름 붙일 수 없음을 「루마니아의 연인」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와 역사적으로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동유럽의 루마니아가 이 소설에서는 '특별한 인연'의 나라로 다가온다.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소설은 그래서 픽션의 향기보다 다큐멘터리의 정밀한 사실감이 전면에 흐른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북한은 2천여 명의 전쟁고아를 사회주의 형제국인 루마니아로 보낸다. 이때 루마니아로 이송되는 전쟁고아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 따라온 조선의 청년교사 김명준과 전쟁고아들을 맞는 루마니아의 아름다운 처녀교사 마리아 에네쿠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애절한 이별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독자들은 검은 눈과 푸른 눈의 남녀가 철벽처럼 강고한 제도와 문화의 장애를 넘어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함께 성취감을 느끼고 그 사랑이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강압적으로 제약 당할 때 함께 깊은 슬픔을 느끼

게 된다. 짧은 결혼생활에 이어 40여 년간(지금까지도) 이별을 강요받는 이들의 아픔을 보며 인간이 만든 도그마(dogma)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자유와 존엄을 파괴해 왔는지 곱씹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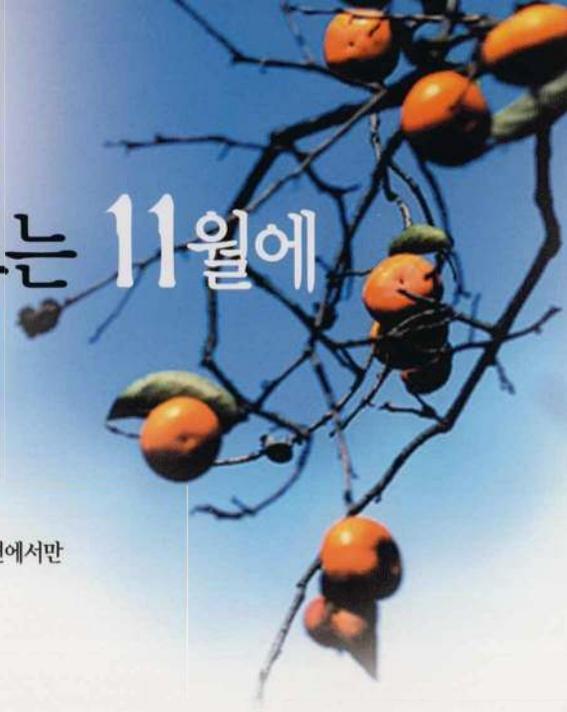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사랑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저자가 루마니아에서 직접 만난 주인공 마리아는 백발의 할머니가 된 지금도 젊은 남편 김명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며 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조선어 사전」은 그 기다림의 증거이자 또 다른 사랑의 표시였다. 그녀의 존재는 '사랑은 눈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슴 속에 있을 때 영원할 수 있다'는 오래된 메시지가 거짓이 아님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분명 독자들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즈음에 결국 그녀는 사랑의 승리자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깊어 가는 가을, 이유없는 그리움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 책이 오히려 그 헛헛한 속을 채워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 접사촬영처럼 세밀하면서도 뚜렷한 묘사력을 갖춘 작가의 문장력은 깊은 몰입과 함께 루마니아 집시들의 노래가 귀에 들리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글 엄영경  
대행/재73기상전대

# 첫 눈이 오는 11월에



11월의 짧은 햇빛은 몽롱하게 닳은 시집 모서리  
그리운 것들, 외로운 것들, 그리고 그 밖의 소리나지 않는 것들의 주변에서만  
잠시 어룡거려다 사라지고  
여리고 순진한 사과 속 같은 11월의 그 햇빛들이 머물렀던 자리  
11월의 바람은 또 불어와 詩 몇 편을 슬렁슬렁 읽어 내리고는  
슬그머니 뒤돌아서 간다

- 최갑수 '11월' 중

한낮의 무더위가 힘겹게만 느껴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 내 푸르던 잎새는 바스라질 듯 붉은 옷을 갈아입고, 가을 하늘은 더욱더 투명해지며 오솔길 사이로 낙엽이 쌓이면서 가을은 깊어만 간다.

11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다가 하순이 되면 전형적인 '서고동저西高東低'의 겨울철 기압배치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북서계절풍이 불기 시작한다.

기온은 3℃에서 13℃의 분포로, 하순으로 가면서 기온 하강 폭이 커지고,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때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파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11월 말이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첫눈이 시작된다. 급작스런 한파와 강풍, 그리고 눈을 동반한 돌변기상은 항공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따라서 날씨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강수량은 10월과 비슷한 50mm 내외로 겨울 가뭄이 시작된다. 또한 기온 급강하로 전열기의 사용

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기로는 찬 서리가 내린다는 입동立冬이 7일이고,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며 무말랭이, 꽃감 말리기를 한다는 소설小雪이 22일이다.

찬 서리 내리고 집 한쪽 감나무 끝엔 까치 밥만이 남아 홀로 외로운 때가 입동이다. 일순간 몰아치는 찬바람은 짧았던 가을의 끝을 알리고 벌써 긴 겨울의 시작을 고한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11월을 일컬어 추수를 끝내고 아무 걱정없이 놀 수 있는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했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어 '공달'이라고도 했다. 이는 곧 11월이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하는 달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나긴 겨울을 앞두고 우리 공공인들도 서서히 몸과 마음의 월동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

다 자 의 소 리

'열전 천하무적' 촬영 추기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TV에서 공군편을 시청하며 궁금했던 촬영 과정과 촬영 추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어 흥미있었습니다.

충북 옥천군 강길수

동아리 열전이 가장 흥미있었습니다. 부대 안에 밴드 동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병사들이 연습하는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희원

<심포 하나, 休>가 가장 흥미있었습니다. 출판인들의 도시, 독서의 계절인 요즘에 딱 좋은 매우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독서를 생활화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종서

제 추임 한 명이 저희가 많이 아파 병원 신세를 졌는데, 10월호에 나온 고양이 자세를 알려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많이 실어주세요.

충북 청원군 일병 주경민

빨간 마추라의 포상 김영환 장군에 대한 글이 가장 흥미있었다. 빨간 마추라, 신사, 멋, 낭만 이런 것들이 공군의 이미지인데, 김영환 장군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군 창군 멤버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흥미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병 임상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6.6.1~2007.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95, 02) 506-6295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6. 11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독자퀴즈 Quiz

미리 고수 미리 찾아라!

두 사진의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독자퀴즈 엽서에 표시하여 보내주세요.

## 2006년 11월호 독자퀴즈 문제



• 사진설명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서 HH-47 시누크 헬기를 타고 있는 홍원기 군



※ 정답 엽서 마감일 : 11월 20일까지

## 2006년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 2006년 10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충청북도 옥천군 강길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종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재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중서
- 경상북도 포항시 심규야
- 경기도 고양시 일병 임상범
- 광주광역시 서구 정 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희원
- 경기도 수원시 병장 조성호
- 충청북도 청원군 일병 주경민

### <바로잡습니다>

공군지 9월호(통권 제339호)에 실린 역사상징인물 「영원한 공군의 귀감, 감투정신의 표상 이근석 장군」의 내용 중, 3쪽 첫 번째 사진 설명을 “좌로부터 **이근석, 김정렬, 박범집, 장덕창**”으로 바로잡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

간첩/안보사범 및 테러범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 국방개혁의 패러다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

Building-up Aerospace Power through the New Paradigm of Defense Transformation



■장 소■  
공군회관

■일 시■  
2006. 11. 9 (목)

■주 최■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미 랜드연구소

■후 원■  
공군본부